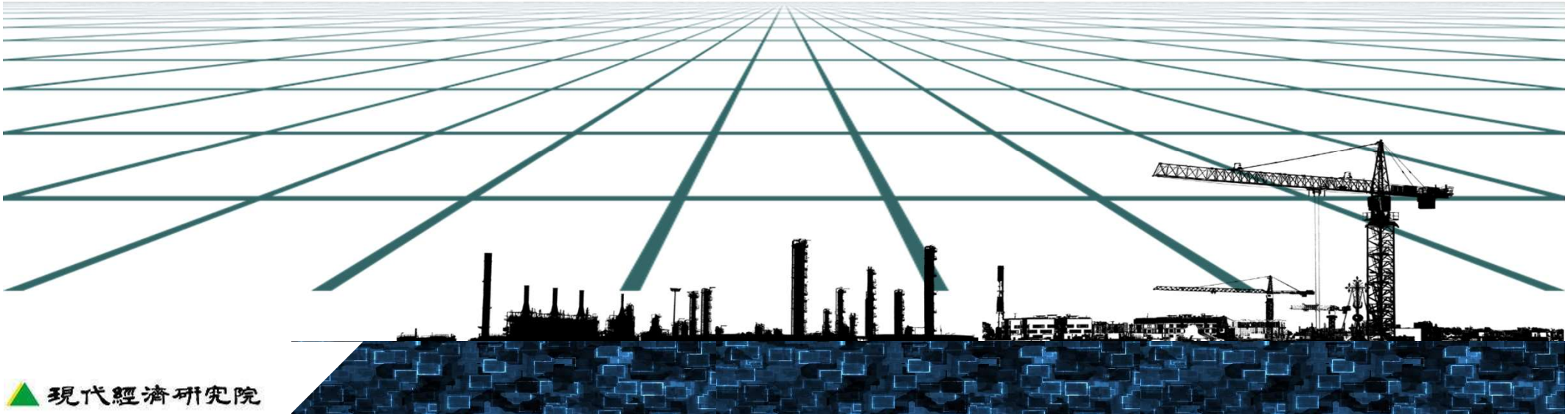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한국 경제 전망

- 새로운 자본주의 연구모임

2025. 6. 18

현대경제연구원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現代經濟硏究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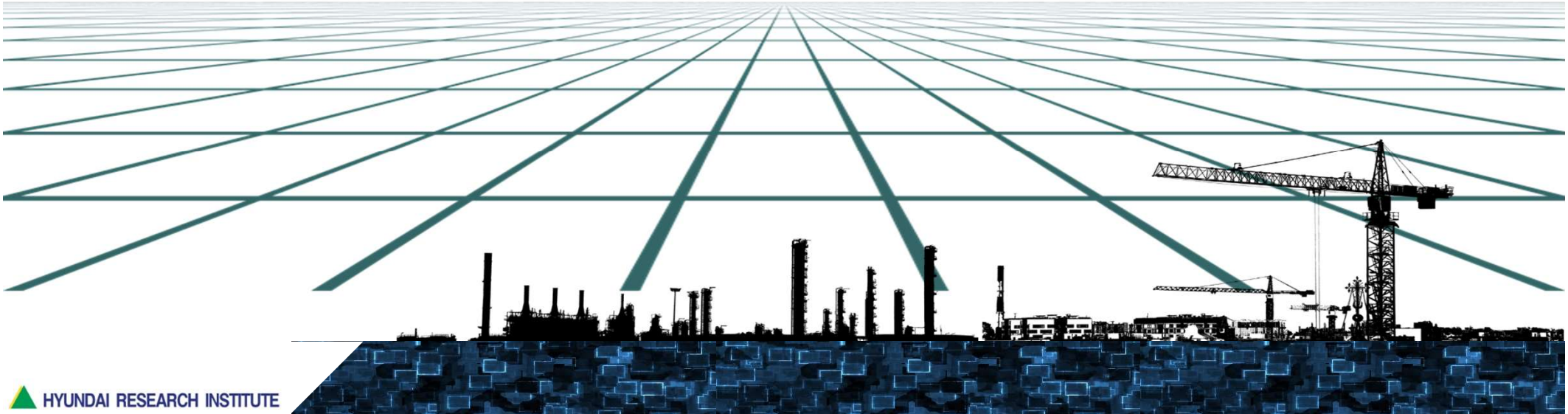
목 차

1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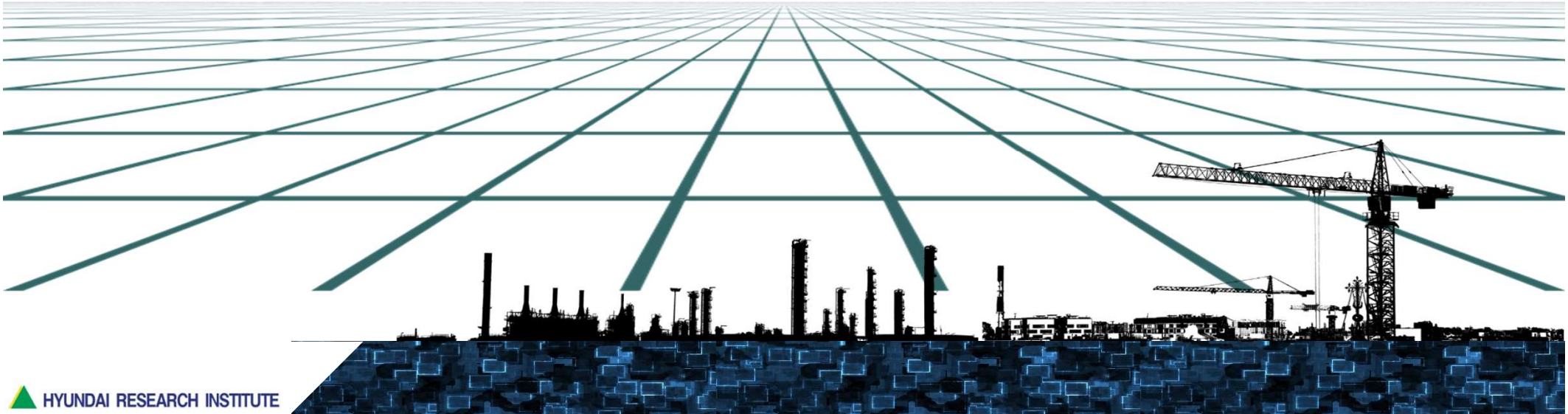
2 주요 경제 이슈

3 한국 경제 동향 및 전망

4 시사점



1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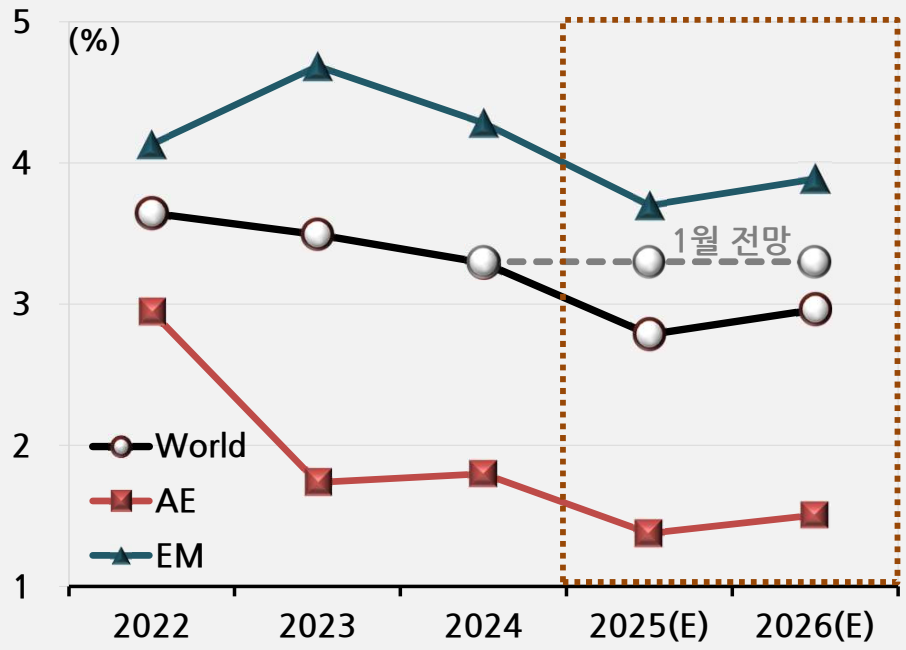


① 세계 경제 개관

2025년 저성장 기조 (IMF 3.3%24 → 2.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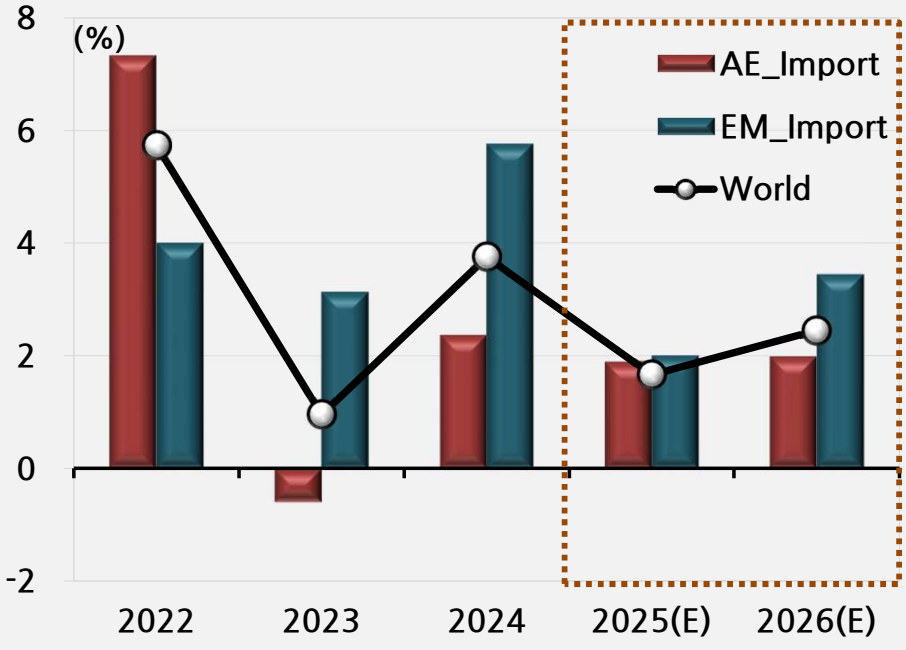
- 국제 정세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 정책,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 요인 상존
- 선진국 : **미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 진입, **유로존 경기는 횡보**세 전망
- 신흥/개도국 : **신흥국** 전체로 **교역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강**이 예상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세계 교역증가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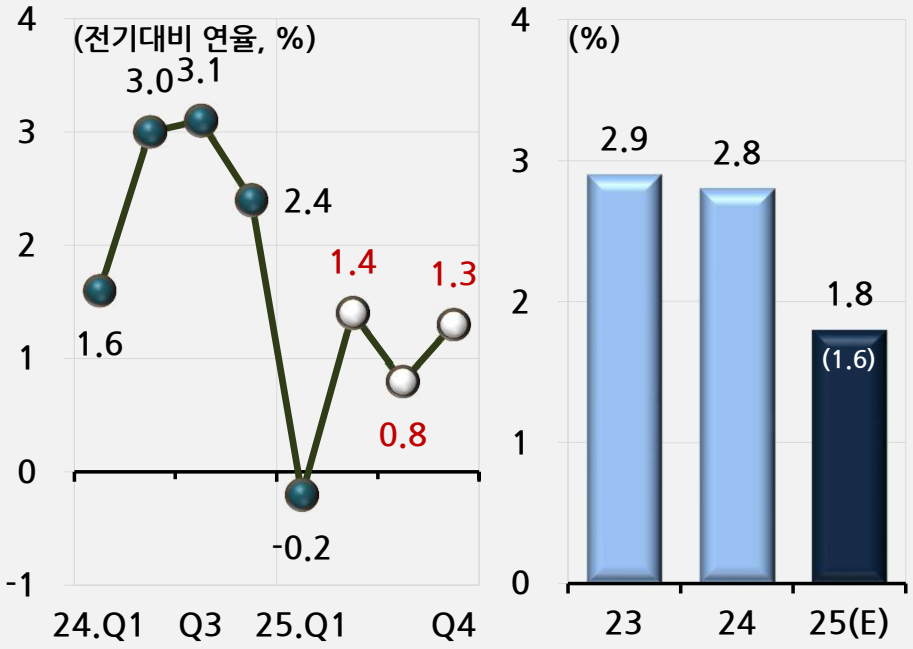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5

①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은 경기 횡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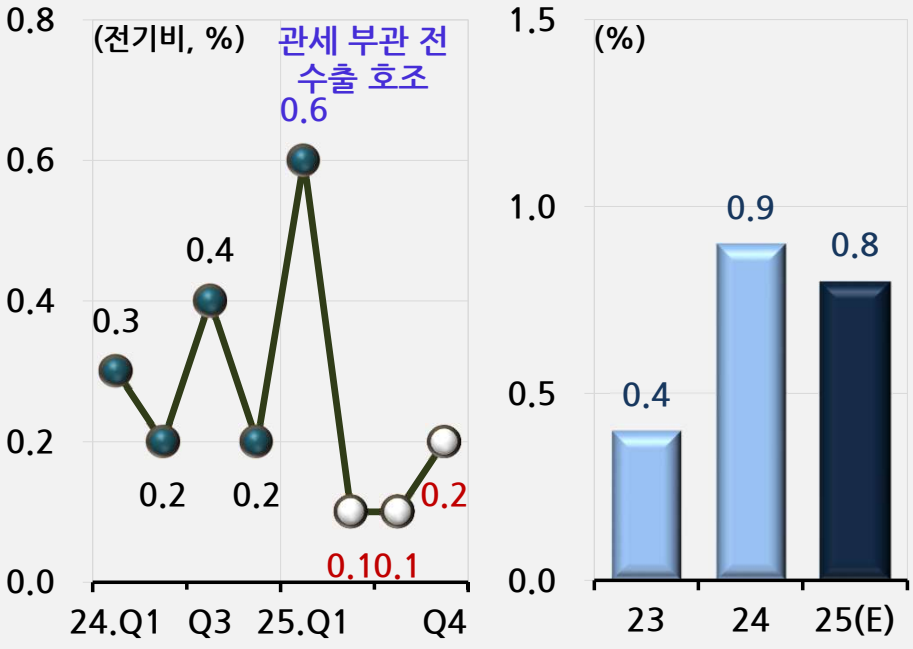
- (미국) **잠재성장률 전후의 경제 성장**,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와 민간의 시각차 존재하면서 경기 방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유로존)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으로 큰 폭의 경기 개선은 어려울 듯, 종전(終戰) 시 빠른 경기 회복도 가능

미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BEA, IMF, Bloomberg

유로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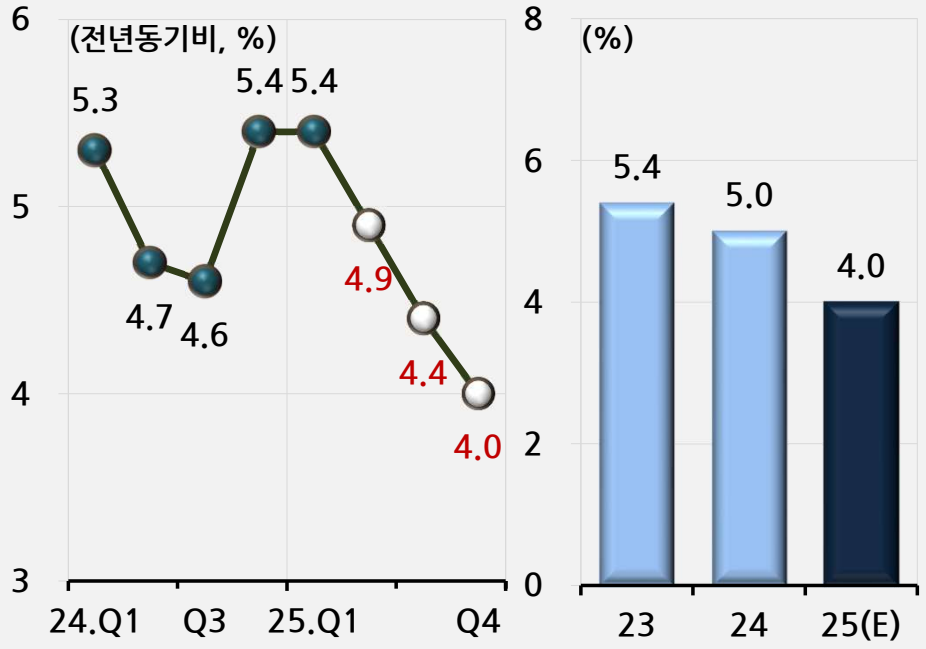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IMF, Bloomberg

①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

▌중국 및 인도 성장 감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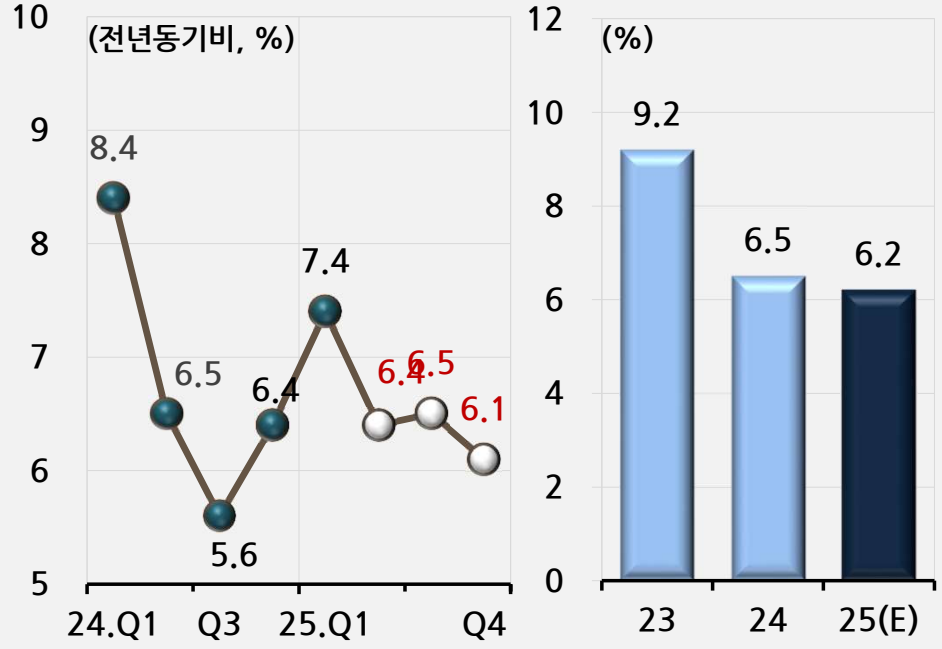
- (중국) 주택 시장에서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지속, 2025년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5% 미달할 가능성
- (인도) 고성장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내수 경기 확장 제약 등에 의해 6%대 초반 성장률 감속 전망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國家统计局, Bloomberg, IMF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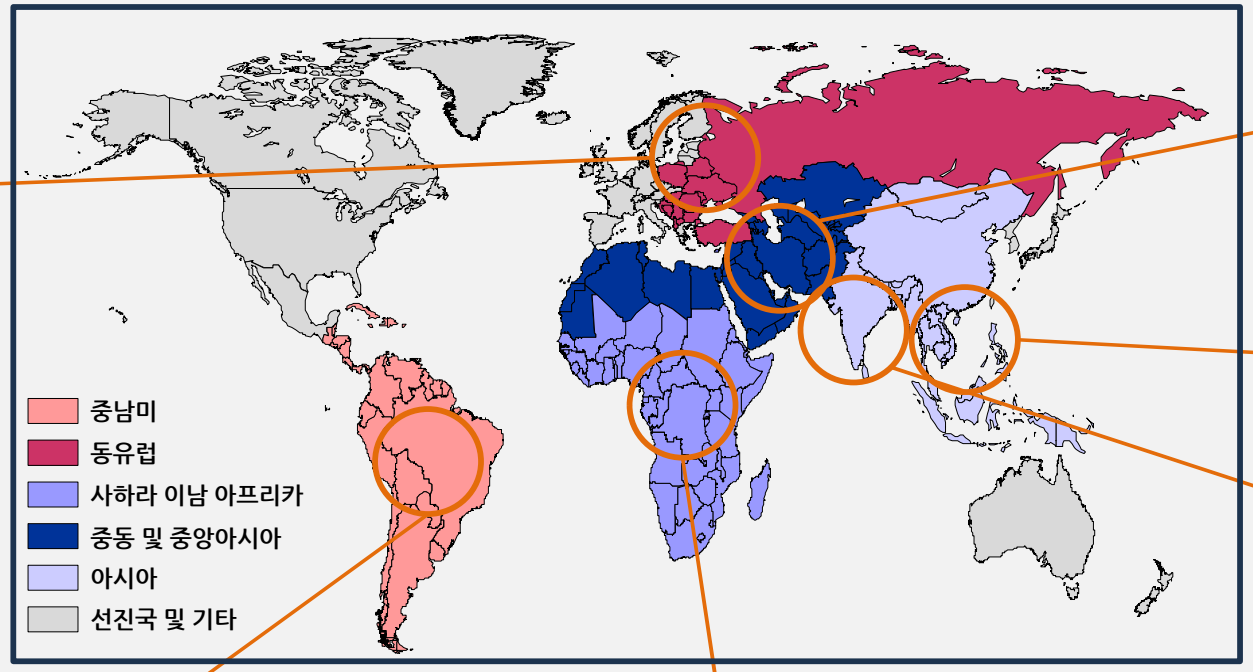
자료: RBI, Bloomberg, IMF

①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

신흥시장 경제 상황은 2024년보다 크게 악화 (IMF 4.3%24 → 3.7%25)

주요 신흥경제권 경제 전망

동유럽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감속 우려
- 역내 최대 경제권인 러시아 성장률 하락 ('24 4.1% → '25 1.5%)
- 2위 터키 성장률도 하락 ('24 3.2% → '2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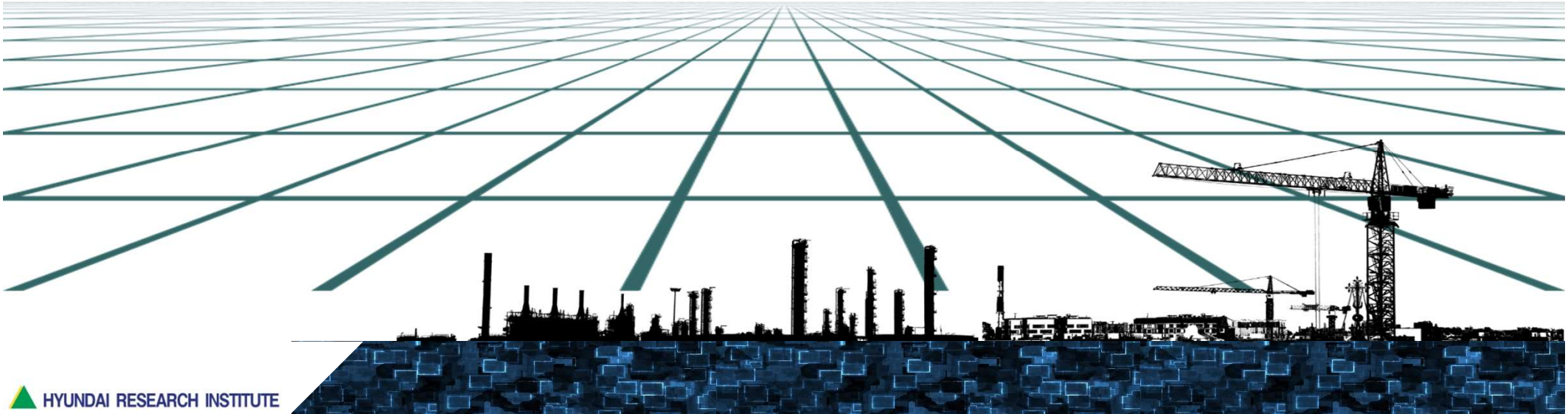
중동 및 중앙아시아
-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역내 경제 활력이 다소 상승

아시아 신흥국
- **(ASEAN)** 중국 경제의 부진 속,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으로 부진
- **(인도)** 지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나, 지방의 민간소비가 견조하여 고성장 지속 가능

중남미
- 지역 내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의 성장 감속 ('24 3.4% → '25 2.0%)
- 아르헨티나의 경기 반등 ('24 △1.7% → '25 5.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내수 회복력이 다소 높아지나 유가 하락과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2 주요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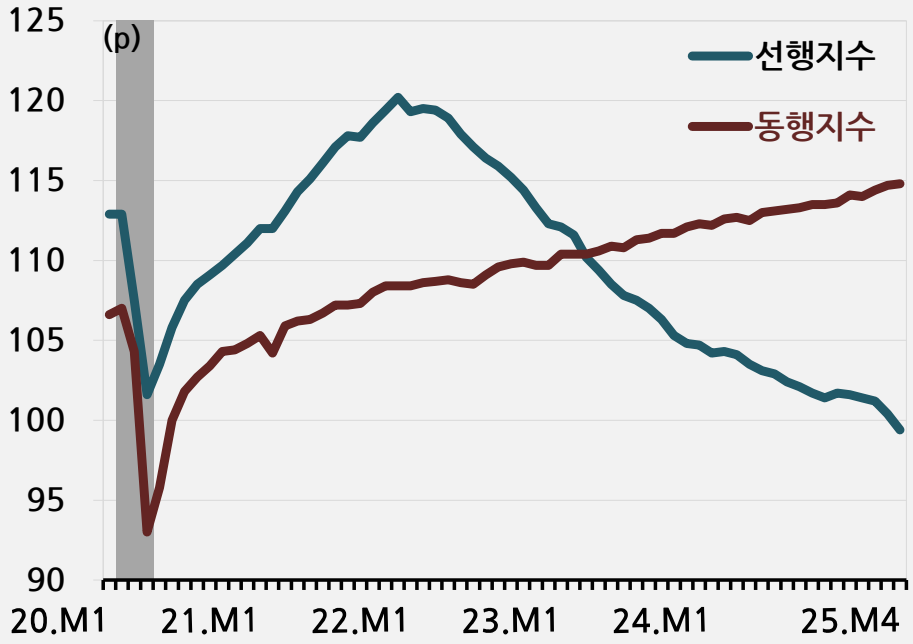


① Trumpcession(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미국 경제의 경기 하강 시점은 임박, 착륙의 강도는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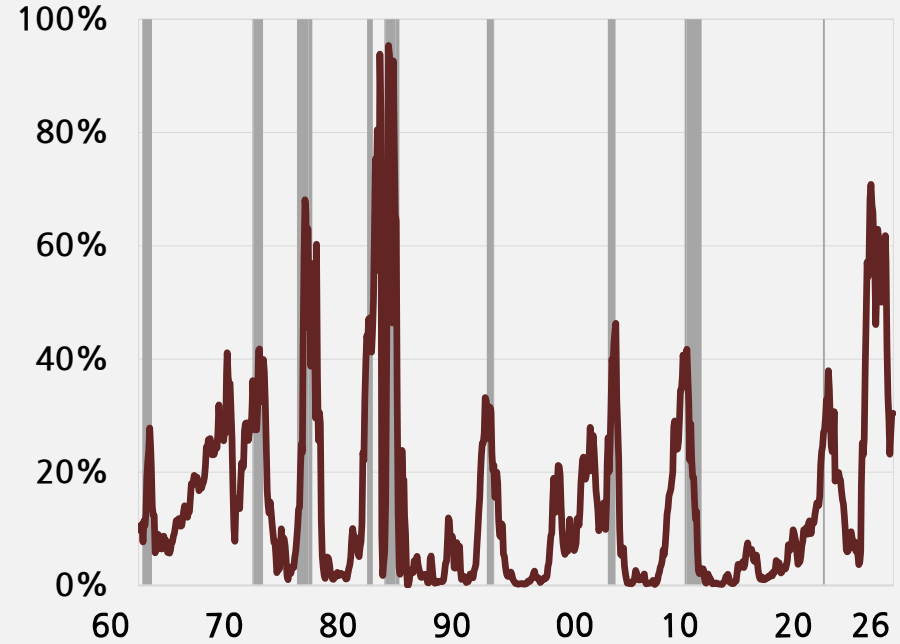
- 동행지수, 2020년 4월 이후 상승(**5년 동안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 선행지수는 2021년 12월 이후 하락
- 동행지수가 본격적 하락(경기 수축)할 수도 있고, 뚜렷한 하락 없이(연착륙 또는 무착륙) 상승세 이어갈 수도
- 뉴욕연방은행의 경기침체 확률은 2025년 4월 현재 30% 수준을 기록(기준치 = 40%)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추이



자료: The Conference Board　　주: 음영은 NBER 공식 경기 침체 기간

미국 경제의 1년 내 경기 침체 확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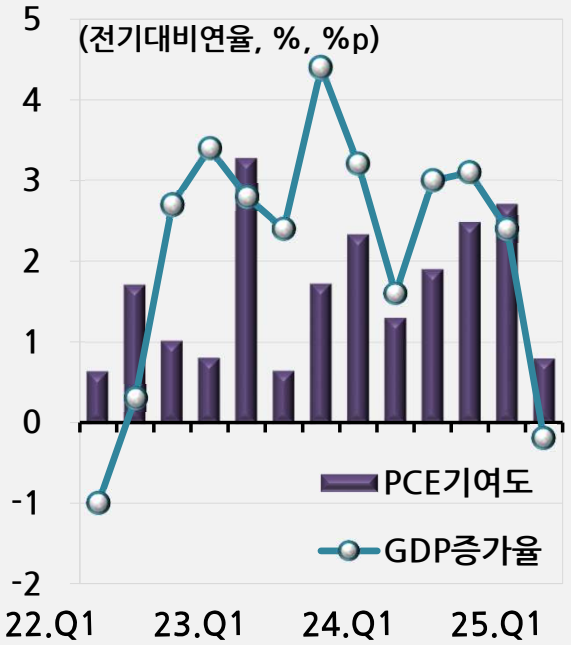
자료: New York Fed　　주: 10년물-3개월물 국채 스프레드 이용

① Trumpcession(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미국 경제의 안전판인 개인소비, 그 구매력에 다소 약화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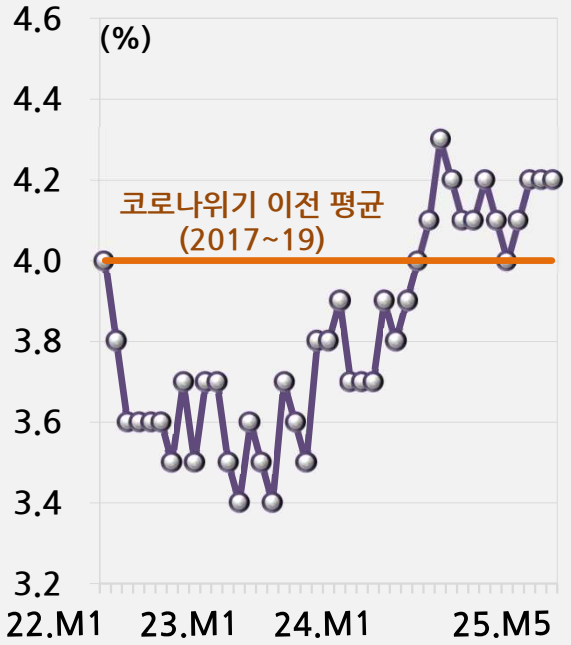
- GDP의 67.9%(2024년 기준)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이 경제성장을 뒷받침
- **실업률**은 2023년 초 완전고용 국면(HRI 추정 자연실업률 3.5%내외)에 도달한 이후 **상승 추세**
- **주식**시장(S&P500)은 기술주 중심 **강세** 지속, **주택**시장(NAHB)은 고금리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부진**

미국 개인소비지출 성장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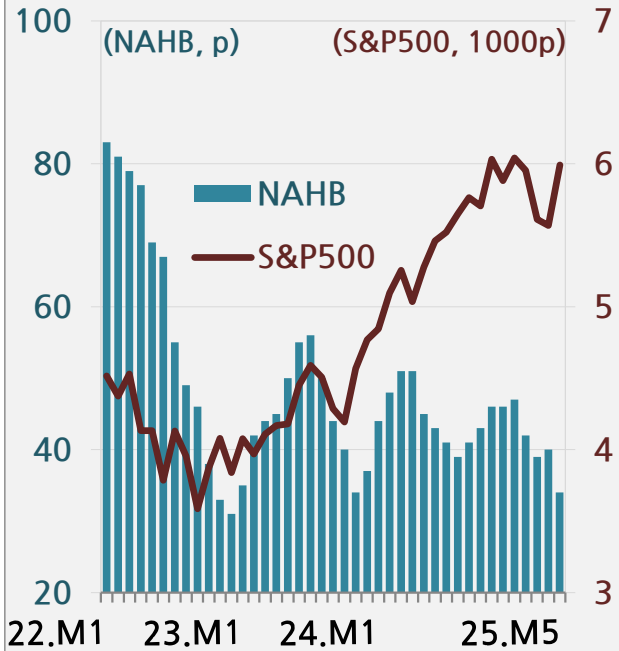
자료: BEA

미국 실업률 추이



자료: BLS 주: Seasonally Adjusted

미국 주가 및 주택시장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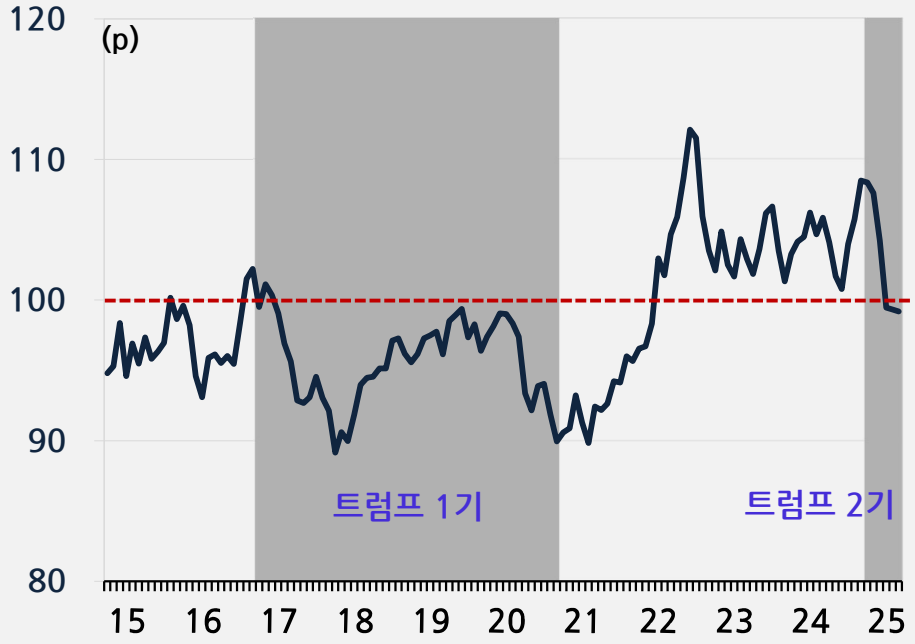
자료: NAHB, Bloomberg 주: S&P500는 월말

① Trumpcession(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약달러 진행

- FED의 **매파적 통화정책**이 지속 중이나, **트럼프 불확실성**이 미국의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약달러
- 특히, 트럼프 노믹스 결과에 따른 환율 방향성은 약달러를 의미
- 향후 달러화 **방향성은 실물 지표(고용 시장)의 성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

U.S. Dollar Index (USDX, Monthly) 추이



자료: FRB

IB 환율(기말) 전망

	24.Q4	25.Q1	25.Q2	25.Q3	25.Q4
엔/달러	157.2	150.0	144.0	142.0	140.0
위안/달러	7.30	7.26	7.25	7.22	7.20
달러/유로	1.04	1.08	1.13	1.14	1.15
원/달러	1,479	1,474	1,414	1,390	1,380

자료: Bloomberg

② Trumpflation(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트럼프행정부와 FED의 정책공조 여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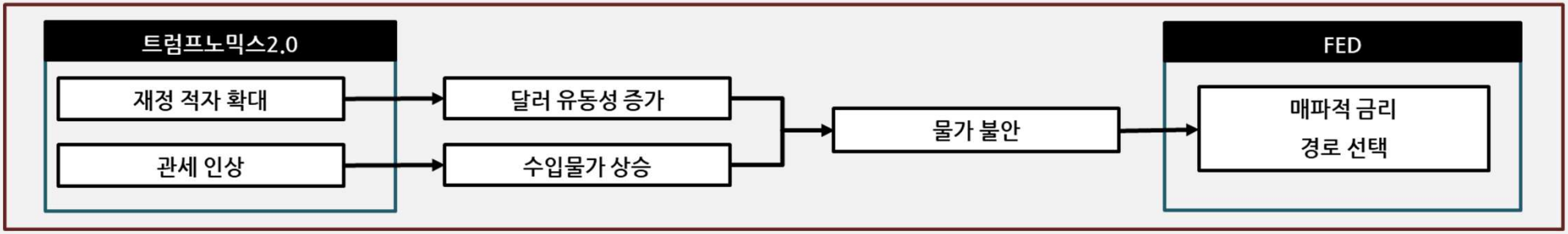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 방향성에 큰 혼란 발생

FED의 금리 및 환율 경로 시나리오

- 파월의 해임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 제롬 파월 의장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금리를 안 내리는 것이다.
- 파월은 정치를 중단해라.
- 파월 의장이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다.
- 파월은 Mr. Too Late 이다.
- 파월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유럽은 이미 9차례나 금리를 낮췄다.

(Image: Reuters)

-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불확실성 높아서 연준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 나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동료들이 법에 따라,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설정할 것이다.
- 신중하고 객관적이고, 정치적 고려 없는 분석만을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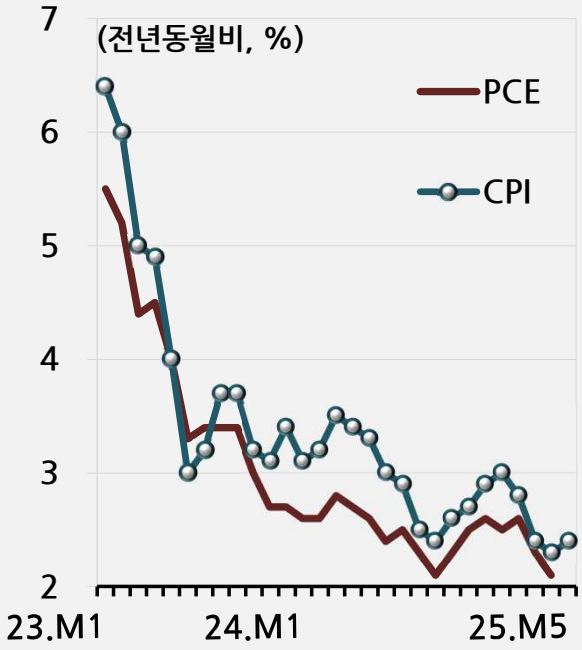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② Trumpflation(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FED의 매파적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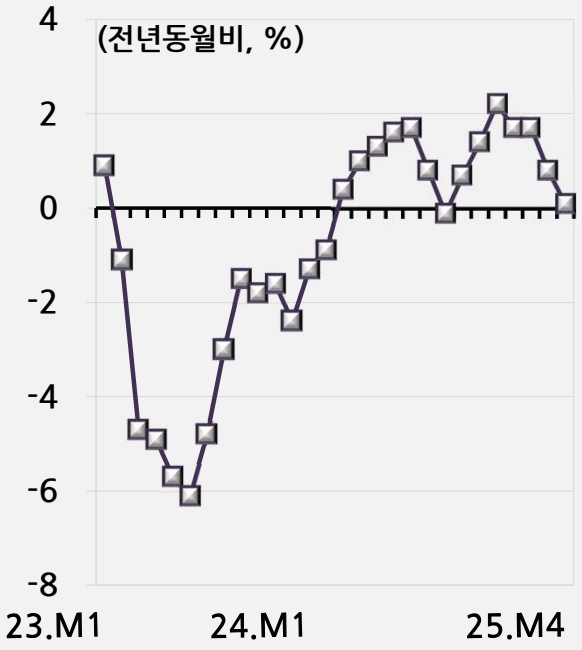
- 현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된 상황, 다만 관세 인상으로 **수입물가가 자극**
- FED의 연방기금금리에 대한 시장 예상치는 2025년 말 4.0%
- 現 한미간 금리 역전 고려시 한은 인하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국내 여건에 따라 빠른 금리 인하도 가능)

미국 CPI 및 PCEPI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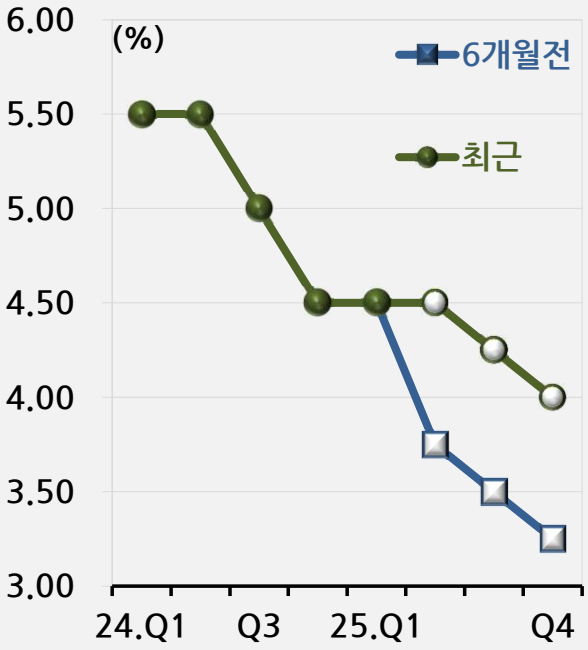
자료: BEA, BLS

미국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BLS

IB의 FED 정책금리 전망 변화



자료: Bloomberg

③ 관세 전쟁

Trump Tariff - 다양한 목적을 위해 전가의 보도(傳家之寶)로 관세 인상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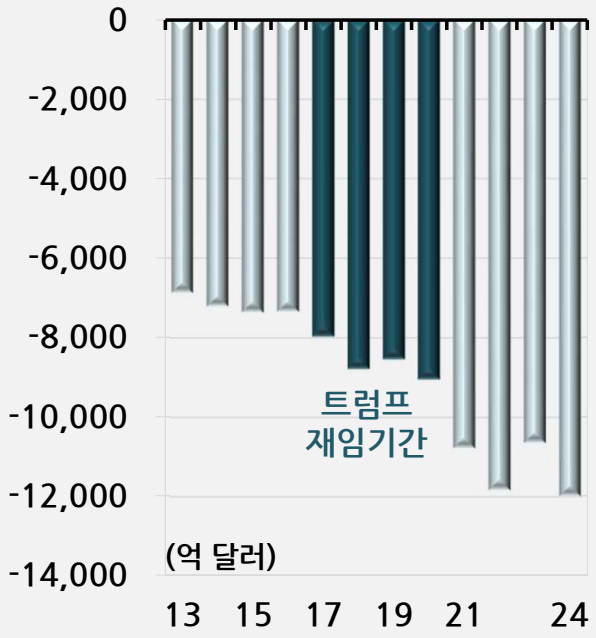
- 트럼프는 상호호혜적 교역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역적자 자체를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로 인식
- 미국 내 상징적 산업을 중심으로 품목 관세 인상(무역확장법 232조), 국가별 펜타닐 및 상호 관세(IEEPA)
- **관세 인상의 목적은 미국 내 사회 문제 해결, 자국 산업 보호로 지지율 제고, 무역적자 개선, 세수 확충 등 다양**

트럼프 관세인상 정책

국가관세 (IEEPA)	▪ 펜타닐, 불법이민 등 캐나다, 멕시코, 중국, 콜롬비아 등 ▪ 상호관세(불공정 무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 대상국
품목관세 (section 232)	▪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스마트폰, 의약품, 반도체 등 상징적 품목 ▪ 향후 미국내 이익 단체들의 로비에 따라 품목이 확장될 듯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미국의 무역수지 추이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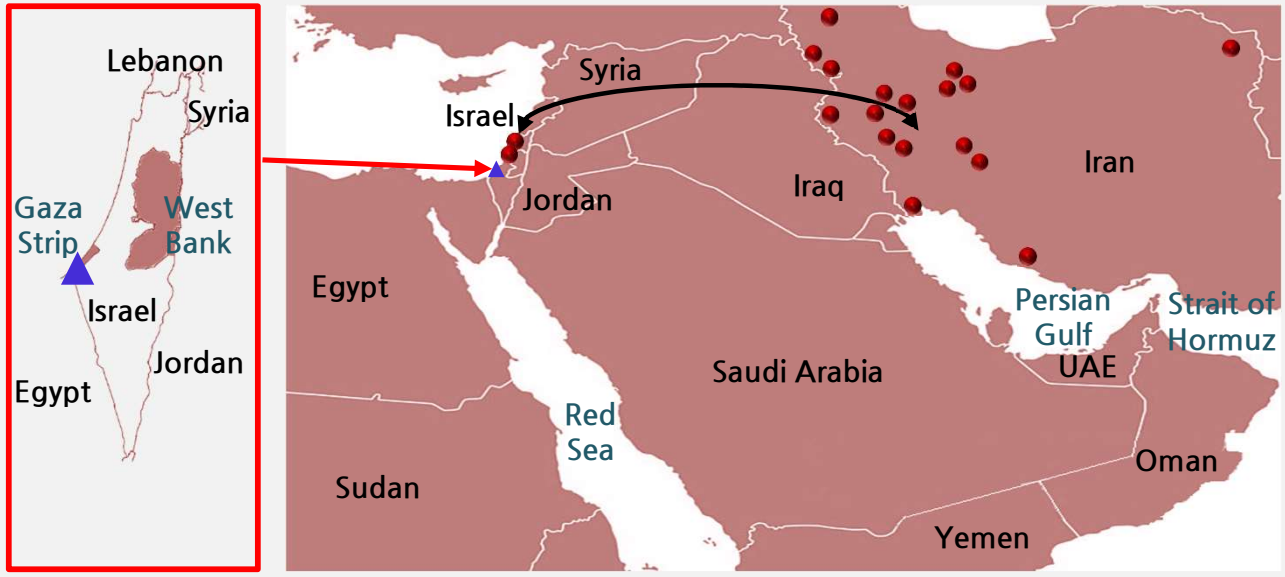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④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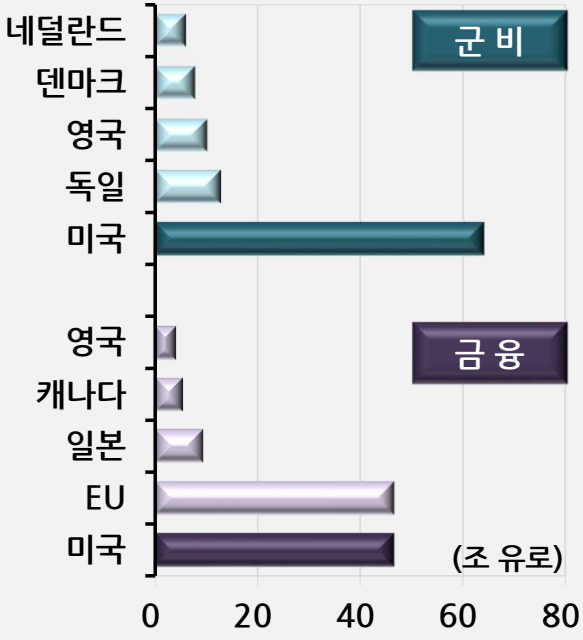
-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Reducing Geopolitical Risk),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 증대**
- 이스라엘·이란 간 공중전이 발발하였으나, 전면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은 불가, 종전 가능성 증대

Geopolitical Risks of Conflict over Israel



- Israeli military forces: 630K troops (active-duty 170K + reservist 460K), 600 fighter jets
- Iranian military forces: 250K troops, 120 fighter jets

우크라이나 지원 상위 5개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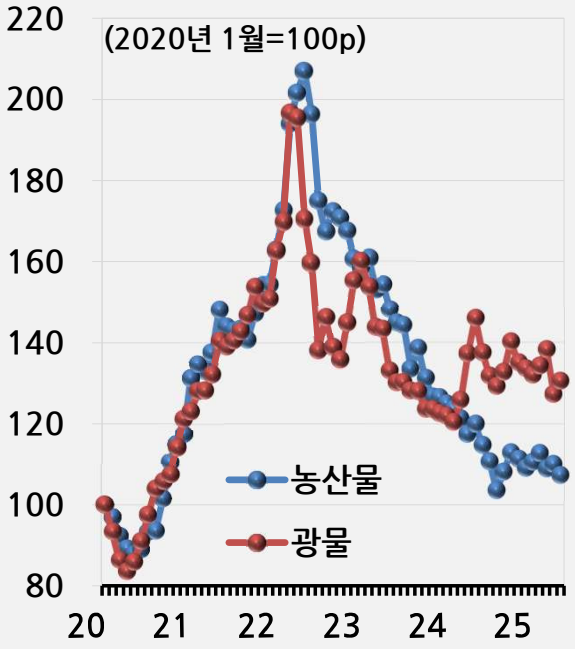
자료: Reuters　　주: 22년 1월~24년 12월

④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원자재가, 대부분 품목에서 완만한 하락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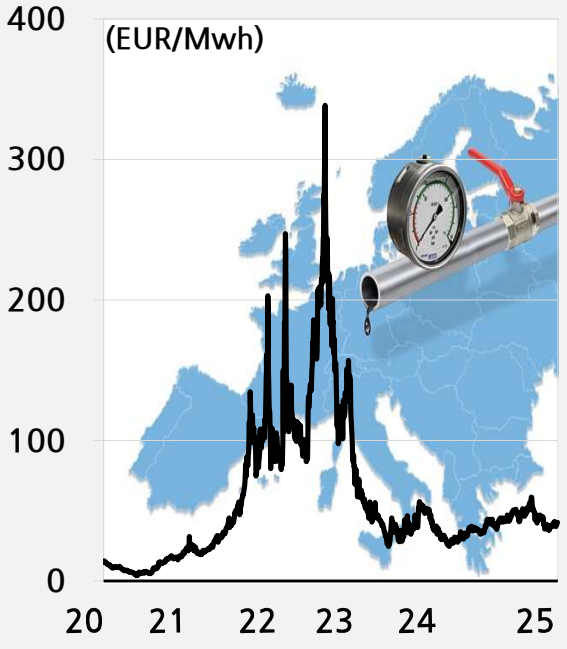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부진**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2025년에도 약보합이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단, 시장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상기후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으로 재급등 우려 상존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World Bank

유럽 천연가스 TTF선물 가격 추이



자료: ICE

주요 광물 가격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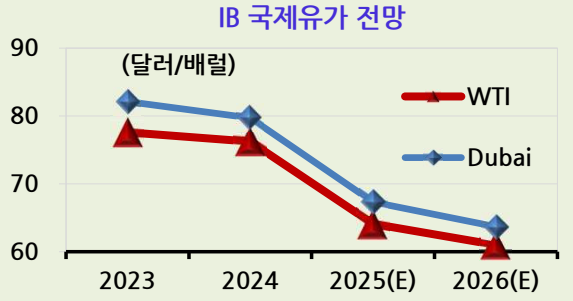
품 목	23	24	25(E)
석탄(호주산) (USD/MT)	172.8	136.1	100.0
아연 (USD/MT)	2,653	2,776	2,500
동 (USD/MT)	8,490	9,142	8,200
알루미늄 (USD/MT)	2,256	2,419	2,175
철광석 (USD/DMT)	120.6	109.4	95.0

자료: World Bank Outlook(April 2025)

⑤ 저유가(수급 차원)

국제유가, 약세 예상

- 국제 유가는 OPEC+ 증산 조치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주요 소비국인 **중국 경제 침체 가능성** 등으로 시장 수요의 급감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정책도 공급 증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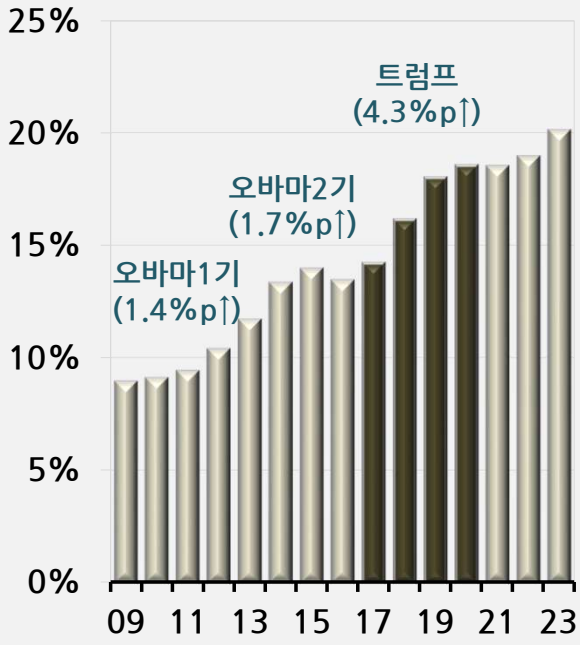


세계 원유 생산 및 소비량(2023년)

	생 산 (1,000배럴/日)		소 비 (1,000배럴/日)	
순위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US	20.1%	US	18.9%
2	Saudi	11.8%	China	16.5%
3	Russia	11.5%	India	5.4%
4	Canada	5.9%	Saudi	4.0%
5	Iran	4.8%	Russia	3.6%
6	Iraq	4.5%	Japan	3.4%
7	China	4.4%	Korea	2.8%
8	UAE	4.1%	Brazil	2.6%
9	Brazil	3.6%	Canada	2.3%
10	Kuwait	3.0%	Mexico	2.0%

자료: British Petroleum

미국/세계 원유 생산 비중 추이



자료: BP 주: 원유, 셰일오일, 오일샌드 포함

두바이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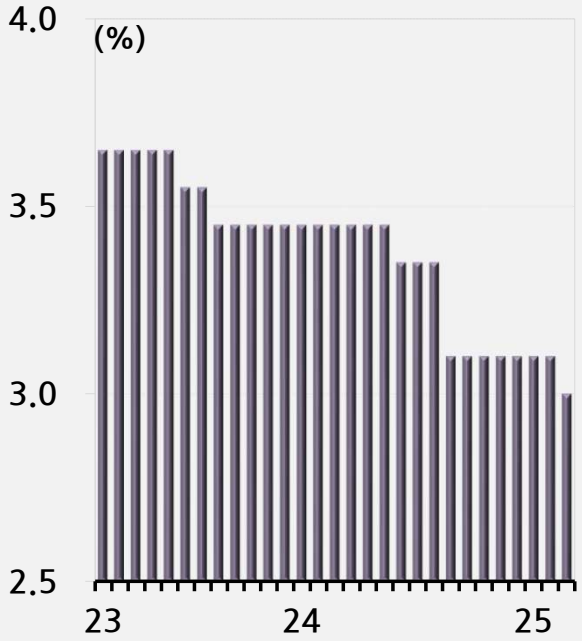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⑥ 중국 경제의 진실

중국, 완화적 통화정책에도 디플레이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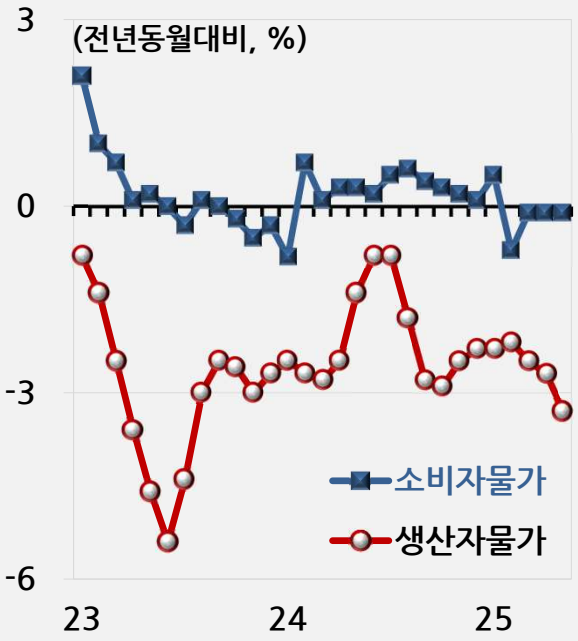
- 경제 이론상 금리 인하(**완화적 통화정책**) 시 인플레이션 강도가 높아져야 하나, **물가가 오히려 하락**
- 특히, 생산자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점은 재고가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 즉,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경제심리 위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미약)에 빠진 것으로 판단

중국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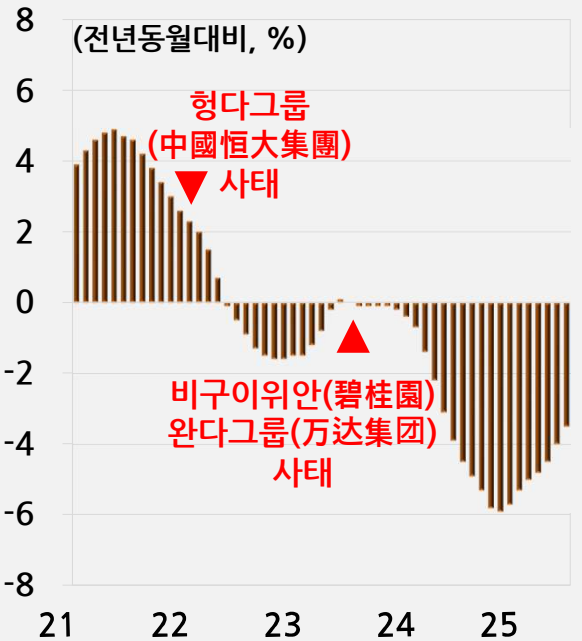
자료: PBC 주: Loan Prime Rate 1년물

중국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추이



자료: 國家统计局

중국 주택가격지수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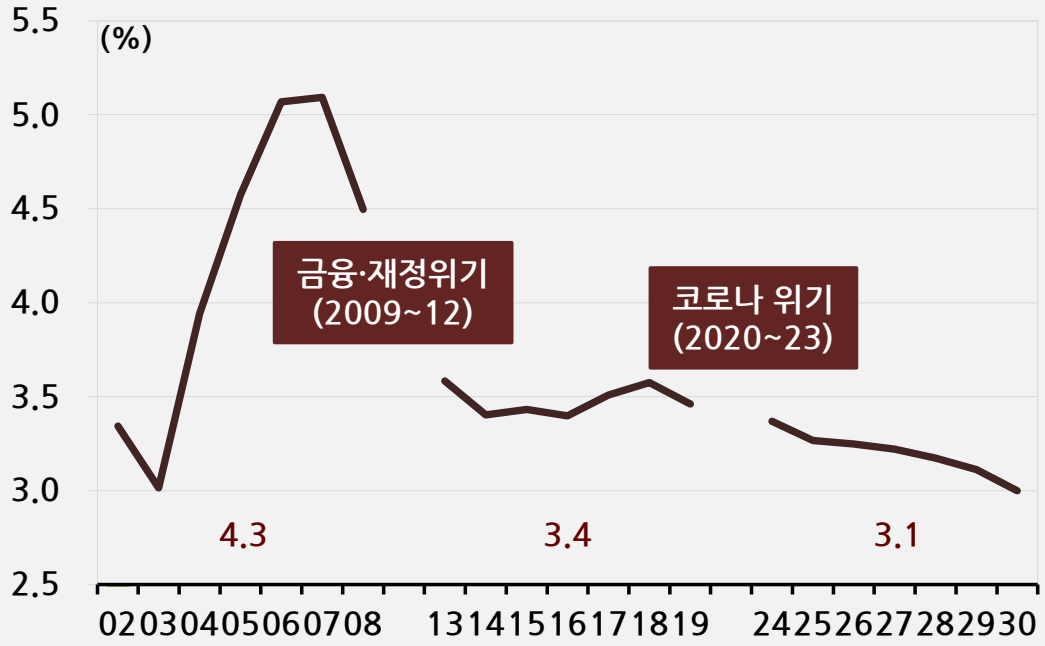
자료: 國家统计局

⑦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

세계 시장의 중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

-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중국 경제의 저성장 진입
- 저성장 국면 진입 배경 ① Tec embodiment, ② Middle income trap of China, ③ U.S. strategy of keeping China in check, ④ Absence of an economy to replace China, ⑤ GVC → DVC(NVC)

세계 경제성장률(3MA)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요 경제권 GDP 비중 전망

	90	00	10	20	30
Euro area	27.0	19.1	19.2	15.5	14.0
ASEAN5	1.6	1.7	2.7	3.0	3.4
China	1.8	3.5	9.0	17.4	17.6
India	1.4	1.4	2.5	3.1	4.5
U.S.	26.3	30.0	22.6	25.0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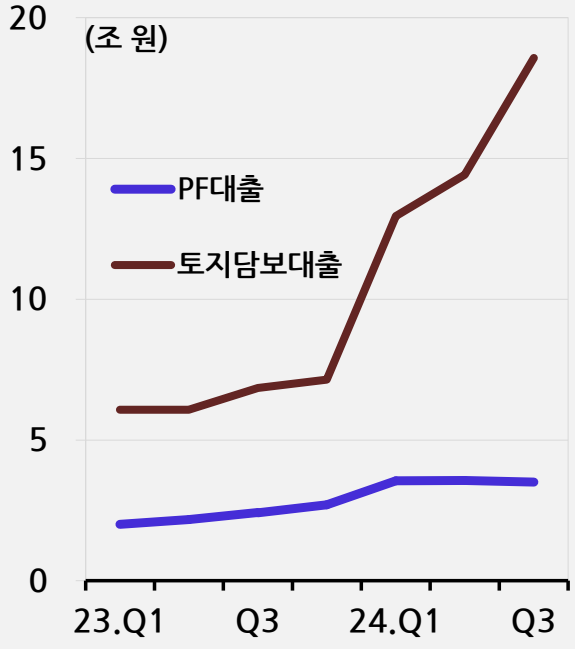
자료: 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⑧ 대출 시장 불안

대출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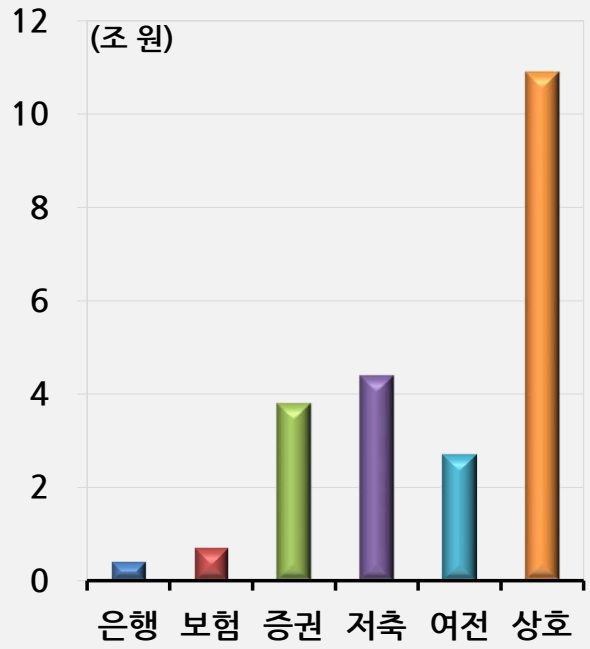
- 24년 10월 기준 총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는 210조 원, 이중 부실 PF 약 23조 원
- 부실 PF는 **상호금융, 증권, 저축은행** 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
- 가계 부문에서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PF 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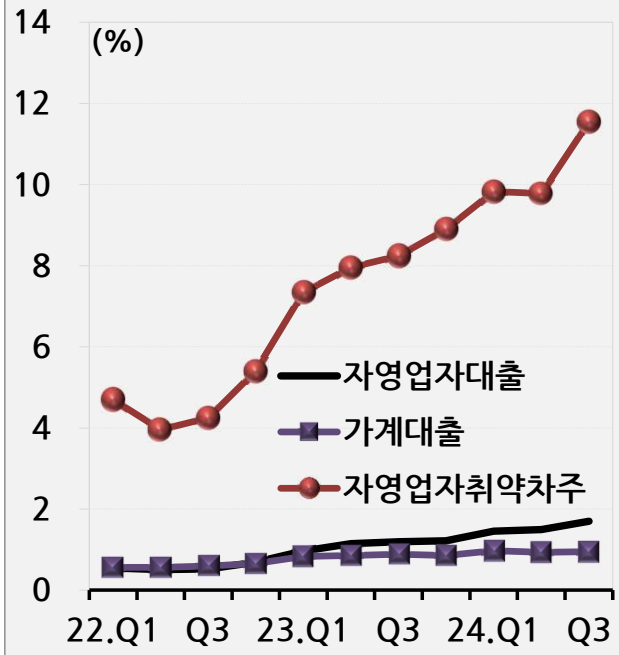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

부실 PF 익스포저(24.9월말)



자료: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

자영업자 대출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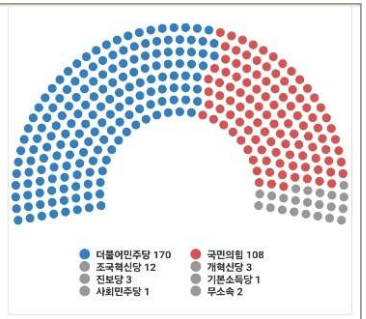


주: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7~10등급)인 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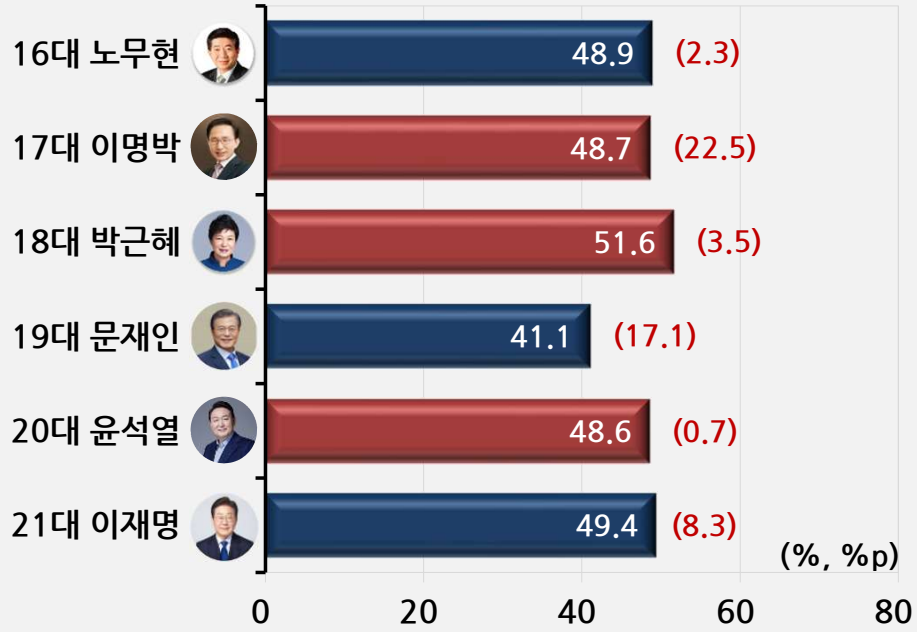
⑨ 이재 노믹스

21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 당선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총 득표율 49.4%로 21대 대통령으로 당선
-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국회의원 300명중 여당이 약 170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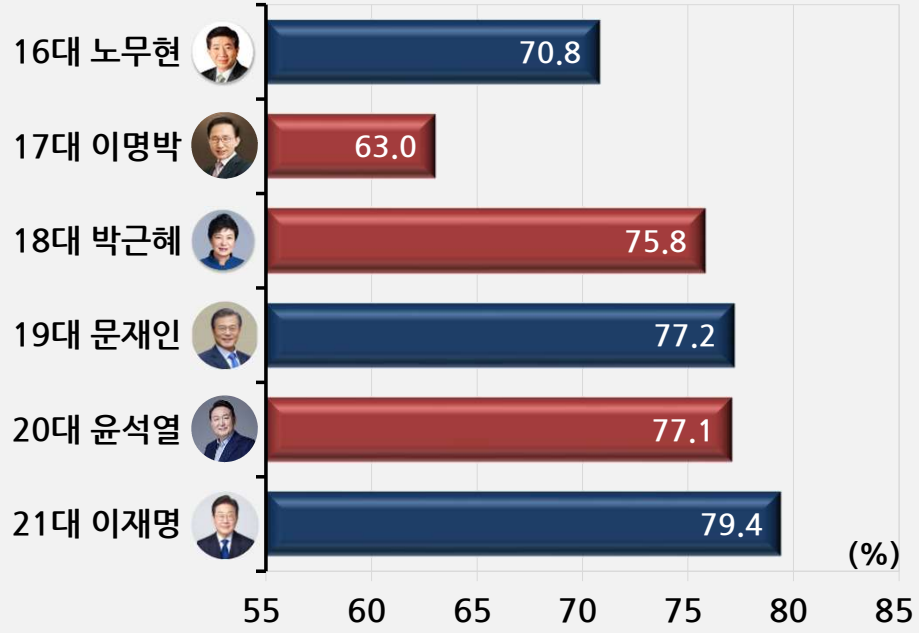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득표율(득표수/투표자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 ) 안은 1·2위 득표율 차이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투표자수/선거인단수)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⑨ 이재 노믹스

현 정부 경제 철학은 크게 보면 포용적 성장 기조

- 글로벌 금융/재정위기 이후 경제철학의 사조는 신자유주의에서 **포용적 성장(균형 성장)**이 대세
- 이재노믹스의 시장을 바라보는 경제 철학은 J-노믹스의 포용적 성장의 경제 사조에 근간
- 다만, J-노믹스 경제철학의 핵심인 포스트케인지언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없음

경제 사조의 변화

자유방임주의 (Laissez-faire)	케인즈주의 (Keynesianism)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신경제 (New Economy)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TFP교조주의	포스트케인즈학파
Night-watchman state	큰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대한 무개입	경기 부양을 위한 케인즈적 총수요 관리	규제 완화 및 감세 선성장 - 후분배(낙수효과)	세계화, 자유무역 IT 혁명을 통한 골디락스	규제 강화 및 증세 선분배 - 후성장(분수효과)

⑨ 이재 노믹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보다 분수효과(Trickle up effect)

⊙ **신자유주의** - 작은 정부, 기업 중심, 규제 완화, 감세, 노동 유연성 제고, 자유무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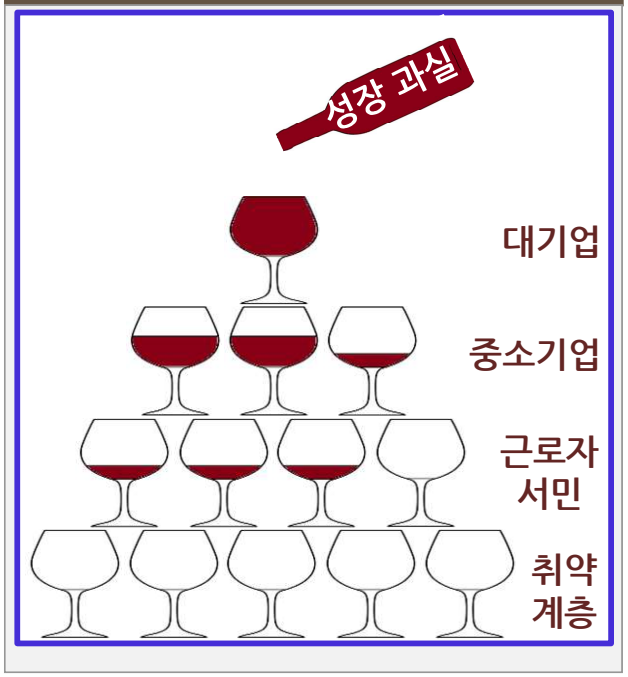
- 낙수효과(선성장·후분배): 대기업과 부유층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확산

⊙ **포용적 성장** - 큰 정부, 근로자 중심, 규제 강화, 증세, 노동자 보호

- 분수효과(선분배·후성장): 서민·근로자 소득 확충 및 복지 확대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이익 증대

신자유주의(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비판



포용적 성장(선분배-후성장)

⑨ 이재 노믹스

3대 비전 중 성장(진짜성장론) 부문 개념도

대한민국
진짜성장

비전	경제·산업 대도약 AI 3대 강국 ·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			
3대 전략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5대 과제	AI 혁신 생태계 구축과 미래 전략사업 육성	중소벤처 성장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성장 기반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개혁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			

- TFP 중심 성장 전략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 지방균형발전
- 기후변화대응
- 선분배·복지우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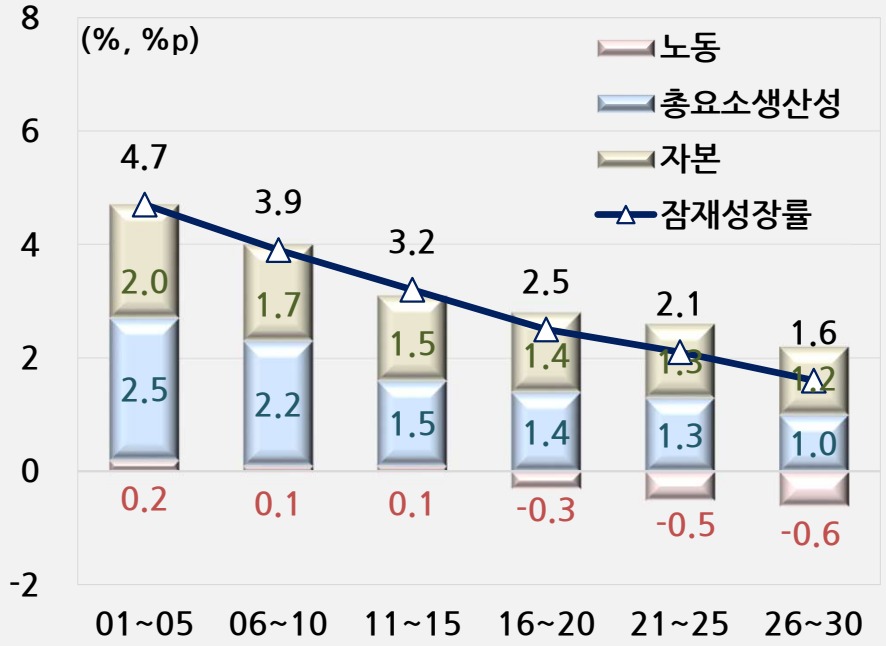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

⑨ 이재 노믹스

(성장구조)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성장률 제고

-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 급감, 1%대 성장률 구간으로 진입, 2050년 경 0% 내외 성장률 전망
- 생산요소(노동, 자본, 효율성) 투입을 증가시키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탈피
-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기대부가가치↑ → 생산요소↑)하는 구조

한국 잠재성장률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성장 구조 관련 주요 공약

01 AX (AI Transformation)
AX 활용을 통한 선도 사업 추진 및 확산 기반 조성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구축

02 신기술 신산업 육성
제약·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한류, 문화콘텐츠, 방산, 자율주행, 양자컴퓨터, 스마트도시, 전기·수소 열차 등

03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
주력 산업 고도화 및 공급과잉에 대한 선제적 사업 재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초격차 첨단기술 혁신생태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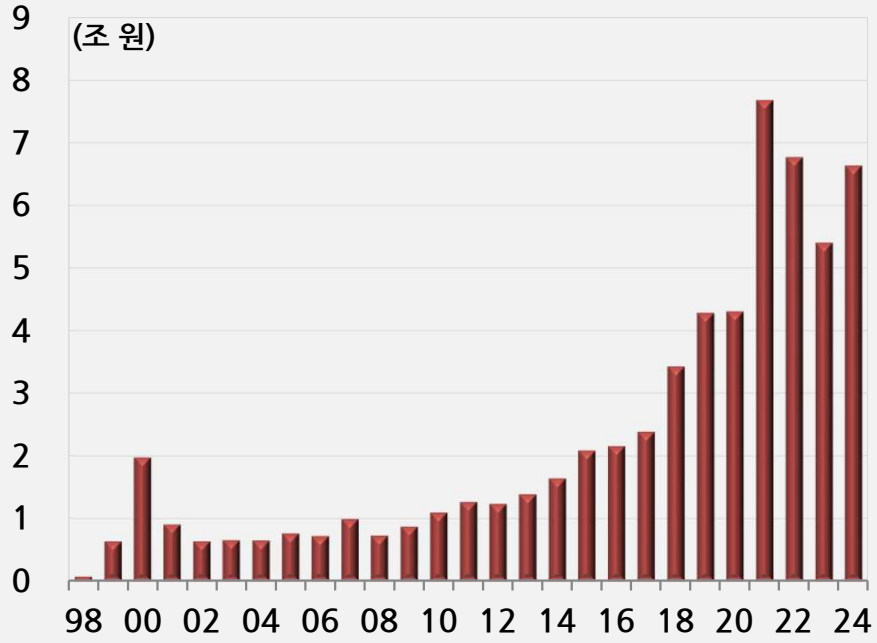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

⑨ 이재 노믹스

(시장접근) 열위 부문에 대한 적극적 시장 개입

- 대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평가절하, 중기·벤처 중심의 경제 구조가 최고의 善으로 인식
- 대주주의 기업 지배 시스템에 대한 불만, 소액주주의 이익 확대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 예상
- 지리적 균형발전을 위해 산은이 대주주인 민간기업의 이전 확대, 지역혁신 클러스터 전략 재부상 예상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규모 추이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시장 접근 관련 주요 공약

01 중소기업·벤처 중심의 경제 구조
중기 협상력 제고 및 대기업과의 근로 여건 격차 해소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연 40조 벤처투자시장 육성)

02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에 대한 이사충실의무,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 사익편취 제한

03 지방균형 발전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

⑨ 이재 노믹스

(기후위기대응) GX의 재부상 속, 탄소중립 우선 순위 先에너지 - 後산업

-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존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기능 확대
- 탄소 중립 전략 추진의 가속화 예상, 이전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정책 목표치 제시할 듯
- 전력 부문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로드맵 가속,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은 현실적 장벽 돌파 모멘텀 확보가 관건

주요 산업 온실가스배출량(2023년 CO_2, CH_4, N_2O)

자료: 한국에너지공단(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요 공약

01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전기차, 재생E, GH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02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실현
석탄 LNG 발전 비중 최소화(원전은 공약에 없음)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03 脫 플라스틱 정책
페트병 생산 축소 및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
플라스틱 원료 사용자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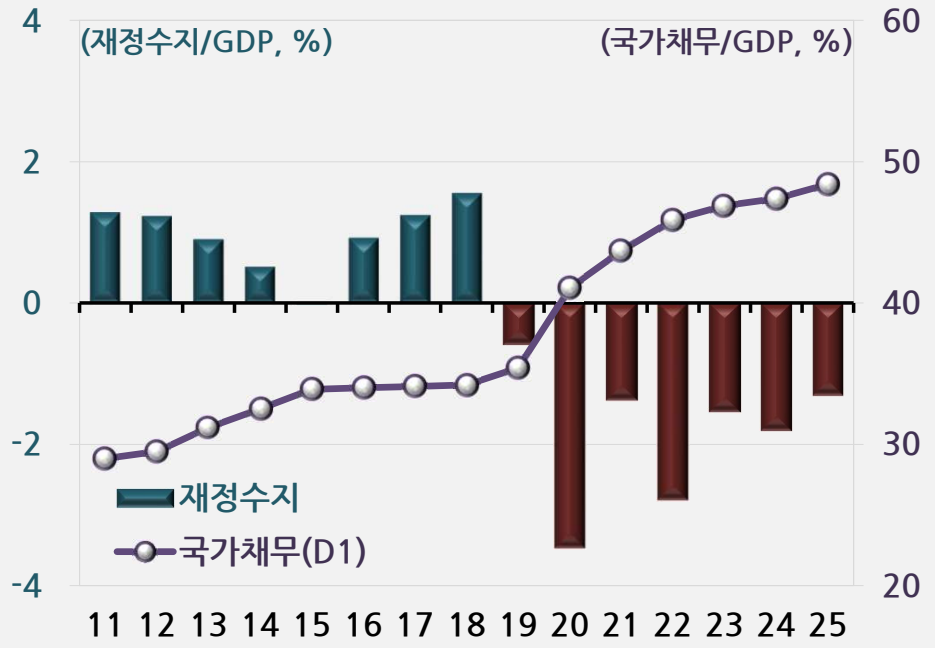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

⑨ 이재 노믹스

(재정정책) 재정수요 증가로 지출 확대 예상

- 집권 초기 직면 경제 현안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대규모 2차 추경 등을 통해 재정 지출 확대를 도모할 듯
-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감세 제도 축소가 공약집에 있으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 단, 집권기간 중 국가부채의 확대로 GDP 대비 50% 돌파가 예상, 이에 대한 방어 논리 개발이 필요할 듯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GDP 비중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재정정책 관련 주요 공약

0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책임성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시 장기재정 전망 영향 반영
재정의 경기 변동 안정 기능 강화

02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준수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인 조세특례 항목 정비
무분별한 조세지출 방지 체계(예타면제요건 강화 등)

03 재정 효율성 확보
목표지향적 재정 성과관리 체계 구축
성과부실사업, 중복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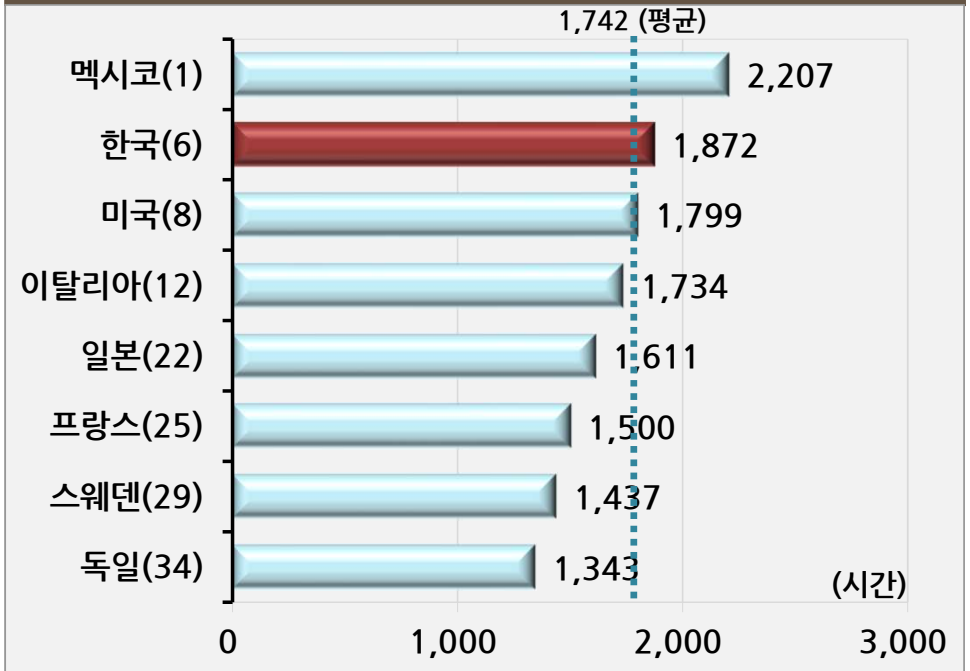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

⑨ 이재 노믹스

(노동) 노조 권한 강화 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노사 관계에서 노조의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초기업노조 모델 제시, 공공 부문 노조 권한 강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 환경 격차를 개선하려는 노력 지속
- 최근 고용 절벽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우선 대응할 것으로 판단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2023년)



자료: OECD　주: 38개 회원국 중 통계 이용가능한 34개국 대상 조사

노동 관련 주요 공약

01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근로기준법」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02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및 노사 자율 강화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 확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자 대표 역할 강화

03 주 4.5일제 추진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제시 및 4.5일제 시범사업 실시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 명시

자료: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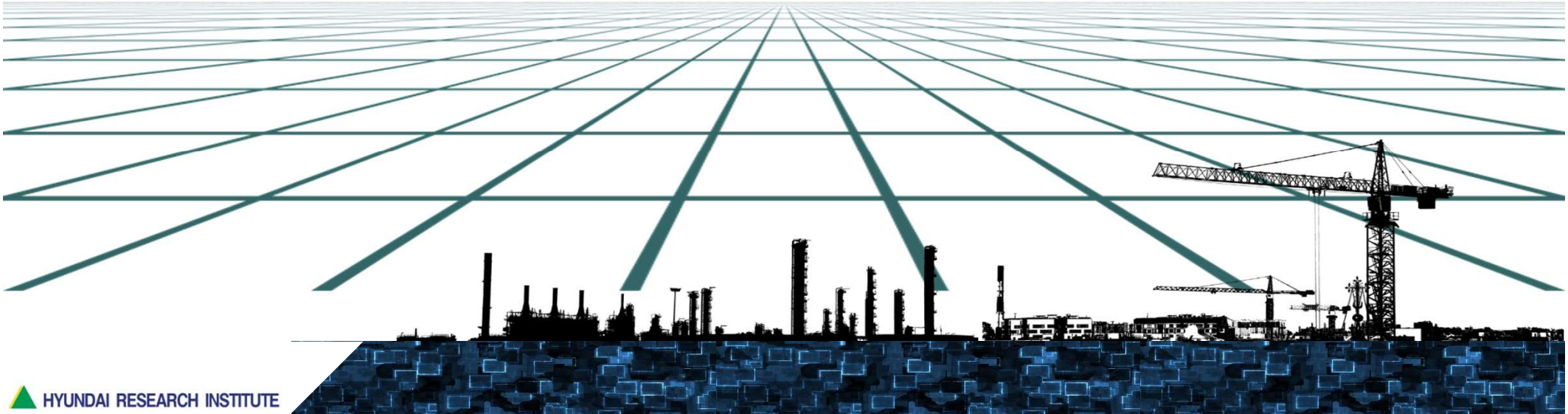
올해 최대 경제 현안은 침체 탈출과 한미 통상협상 타결

-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은 경기 침체 대응과 한미 통상 협상의 조속한 타결
-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 한미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 조건이 쌀·소고기 수입 확대일 경우 국내 반대 여론이 확산될 수도

현 정부 임기 내 당면하게 될 주요 예상 대내외 경제 현안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주요 이벤트	▪ 한일 수교 60주년 ▪ 한중FTA 10주년	▪ 한은 총재 연임(5월) ▪ 지방선거(6월)	▪ 산은-GM 계약 만료	▪ 국회의원선거(4월) ▪ 미 대통령선거(11월)	▪ 미 대통령 취임(1월)
핵심 경제 현안	▪ 경기 침체 대응 ▪ 2차 추경 ▪ 대미 통상 협상 ▪ 농축산물 시장 개방	▪ 고용시장 부진 ▪ 국토균형발전 ▪ 기업 지방 이전	▪ 자동차 산업생태계 복원 ▪ 인천, 창원 지역 경제 위기 극복	▪ 포퓰리즘 대두	▪ 경기 침체 대응 ▪ 추경 논의 ▪ 미국 새정부와의 관계 정립
성장 궤도	잠재성장률 추세 경기 사이클				

3 한국 경제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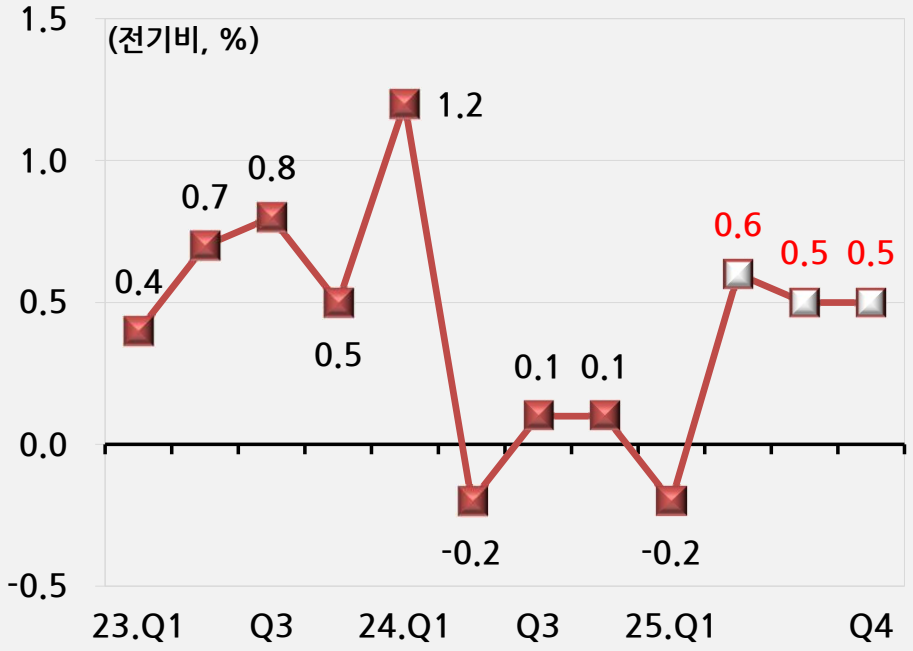


① 경기 동향

1분기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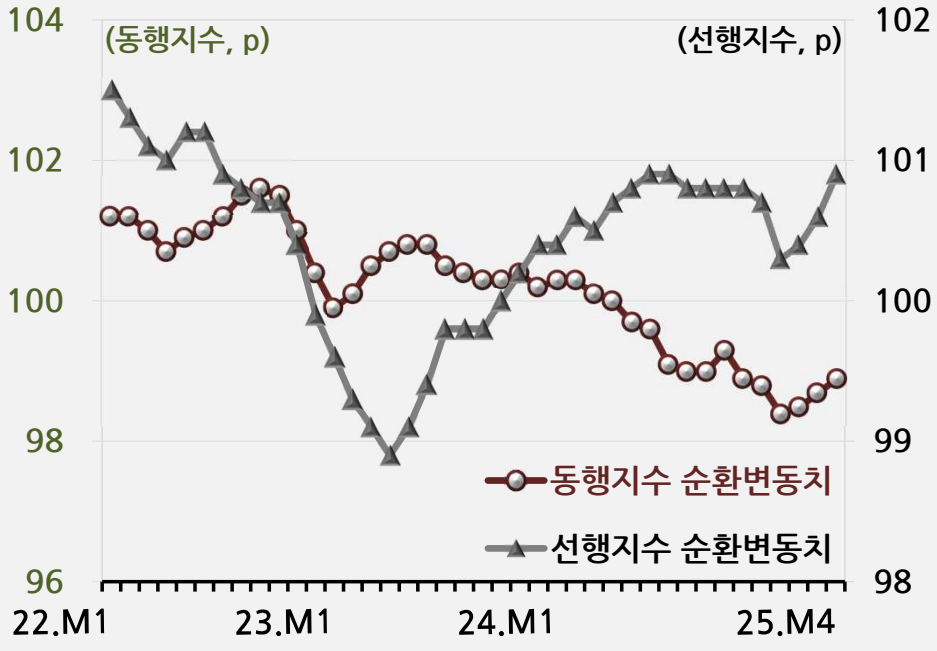
- 2024년 2분기 이후 제로 성장('24년 2분기 -0.2%, 3분기 0.1%, 4분기 0.1%, 25년 1분기 -0.2%)
- 최근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1월을 저점으로 상승 중 → 경기전환점 형성 여부 주목

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지수)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IB 평균)

경기 동행/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자료: 통계청

② 부문별 동향 및 전망 -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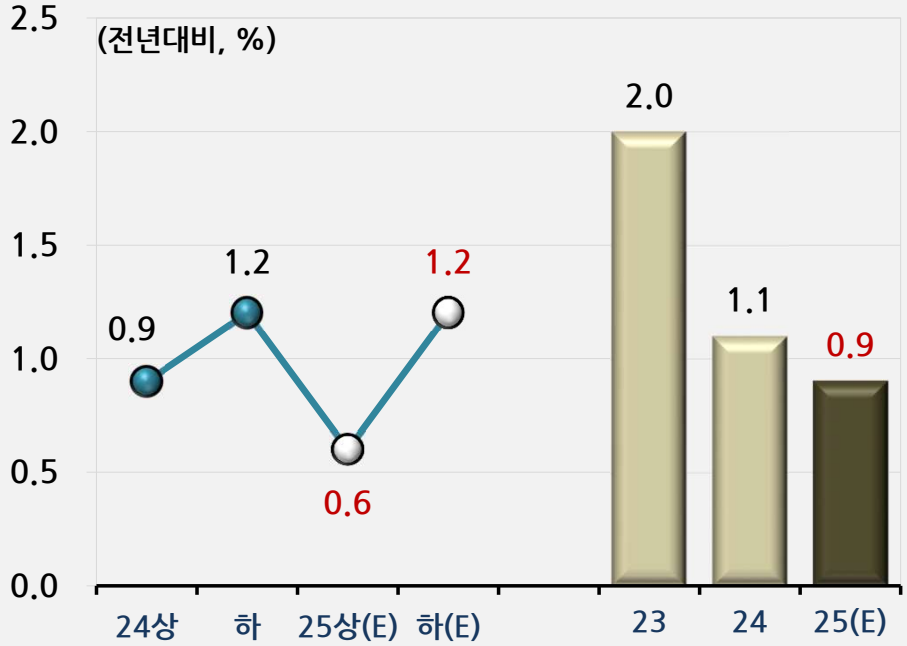
내수 불황 장기화 우려 (HRI 1.1%24 → 0.9%25)

- 향후 내수 시장의 구매력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금리 하락, 인플레이션 완화 등)
-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관세전쟁)에 따른 수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내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전반적인 소비 증가세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경기 판단 및 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 추이

자료: 한국은행

민간소비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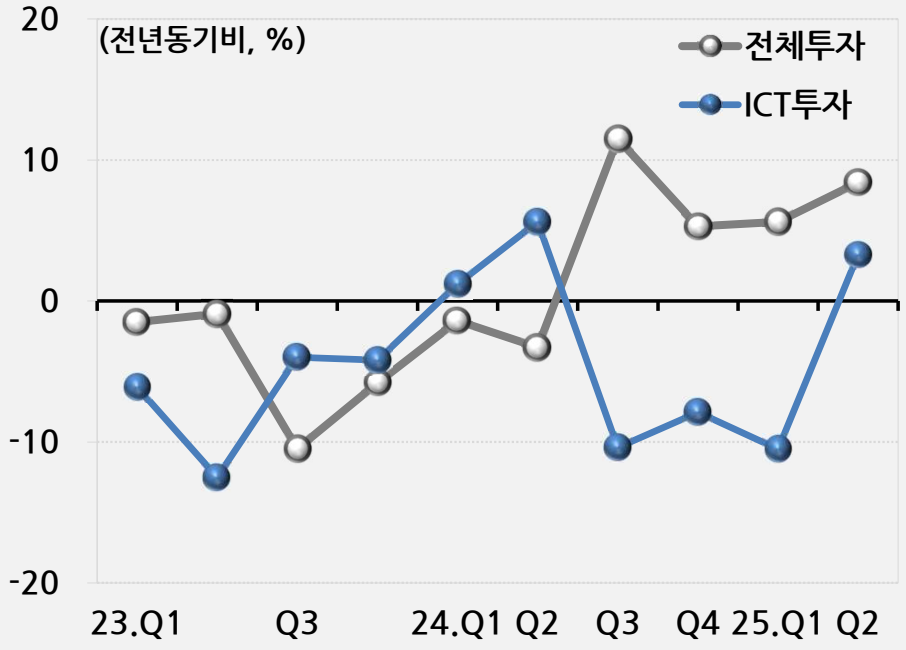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② 부문별 동향 및 전망 - 설비투자

설비투자 부진 전망 (HRI 1.7%24 → 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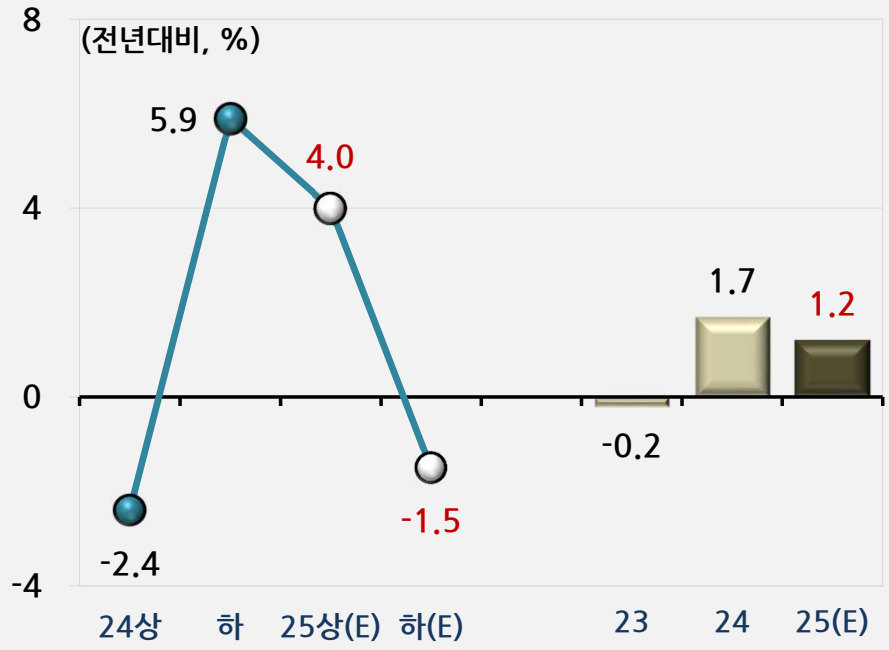
- 해외 시장 불확실성(미국 경기 하강, 중국 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경기가 꺾이면서 투자 침체가 우려
- 다만, AX(AI Transformation), GX(Green Transformation)의 신산업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주: 25년 2분기는 4월 기준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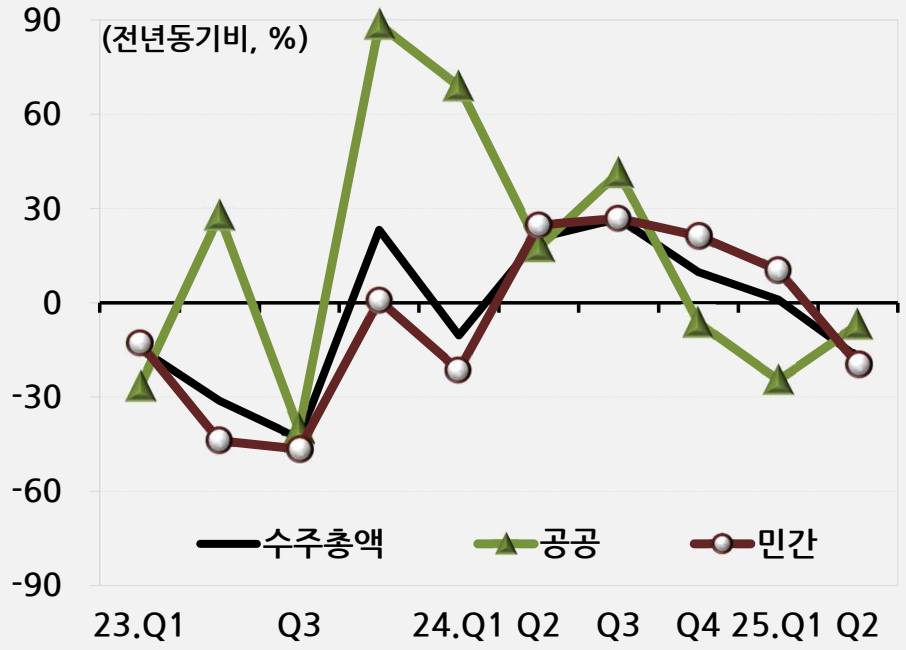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② 부문별 동향 및 전망 - 건설투자

건설투자 침체 지속 예상 (HRI △3.3%24 → △6.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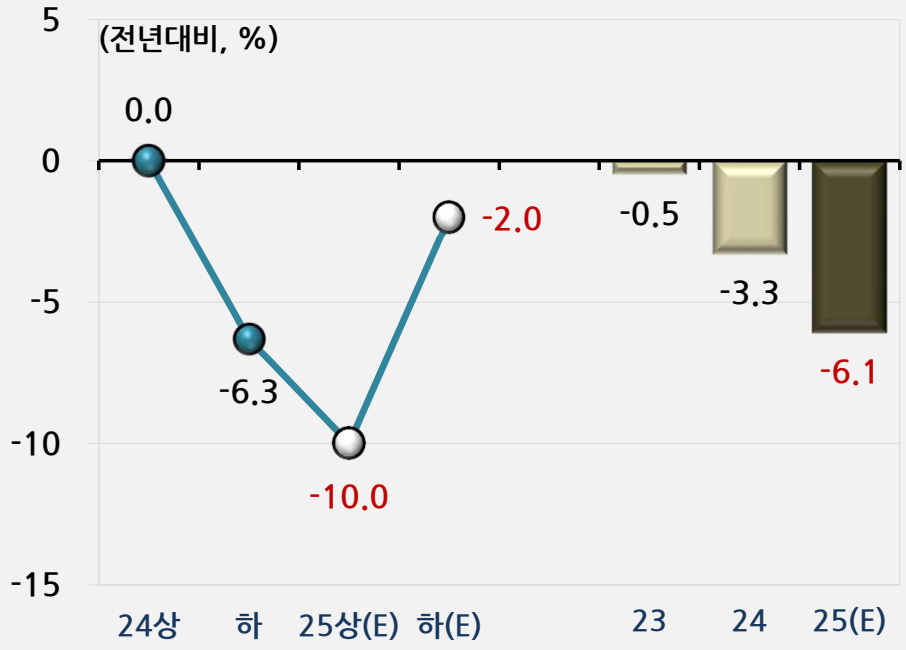
- 착공 지연에 따른 대기 물량이 상당 수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로 금융비용이 다소 완화되면서 건설투자의 반등 가능성을 기대해 볼 여지가 존재
- 그러나, 높은 공사비 부담과 부동산 경기의 양극화로 건설투자 침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발주자별 건설수주 증가율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 25년 2분기는 4월 기준

건설투자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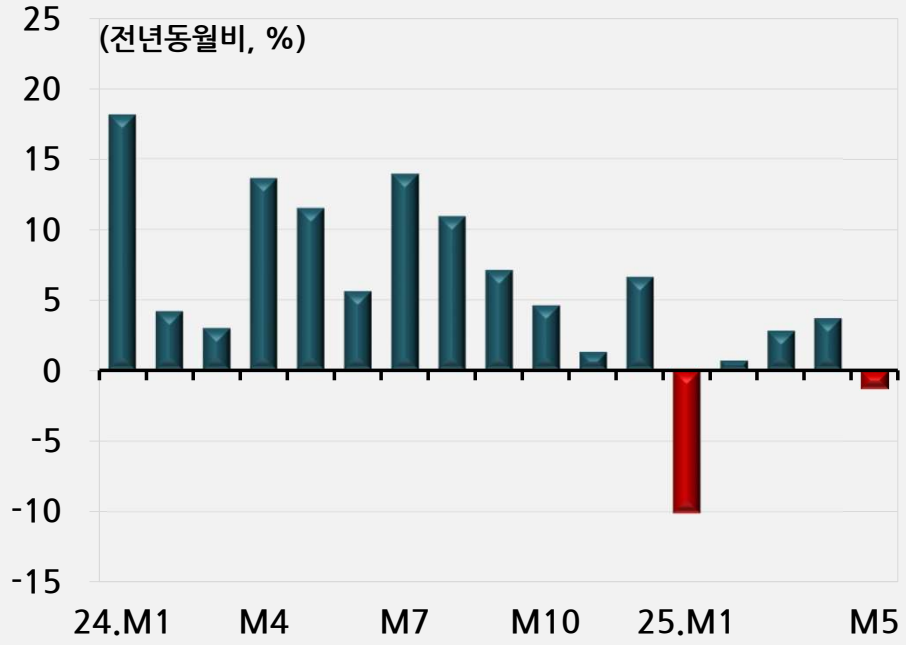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② 부문별 동향 및 전망 - 수출

수출 경기 급락 예상 (HRI 8.1%24 → △4.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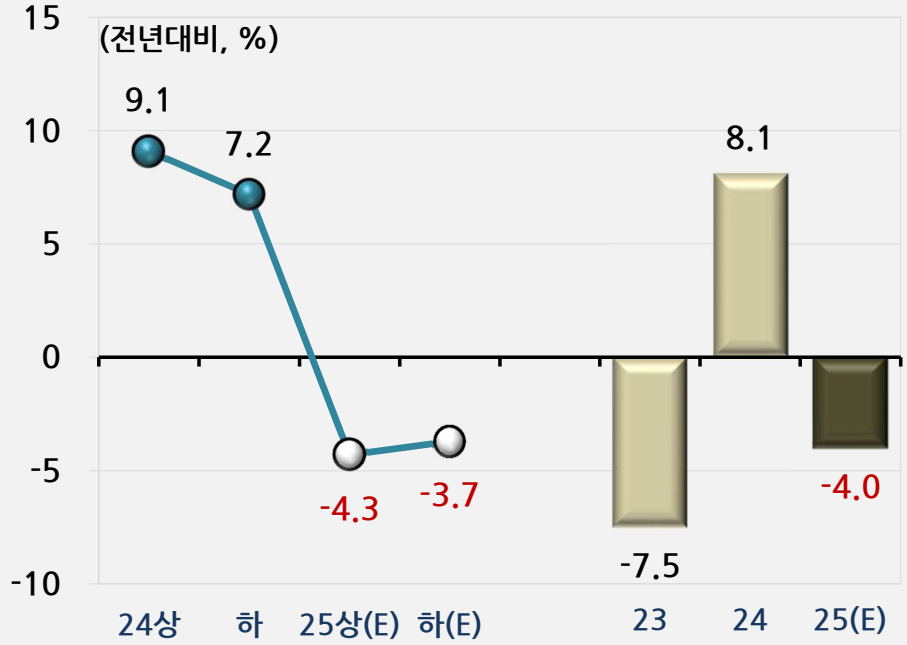
- 2025년 수출은 미국과 중국의 성장력 약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전반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
- 나아가 트럼프 관세인상 영향으로 대미 수출 감소와 글로벌 교역 전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월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관세청, 산업부

수출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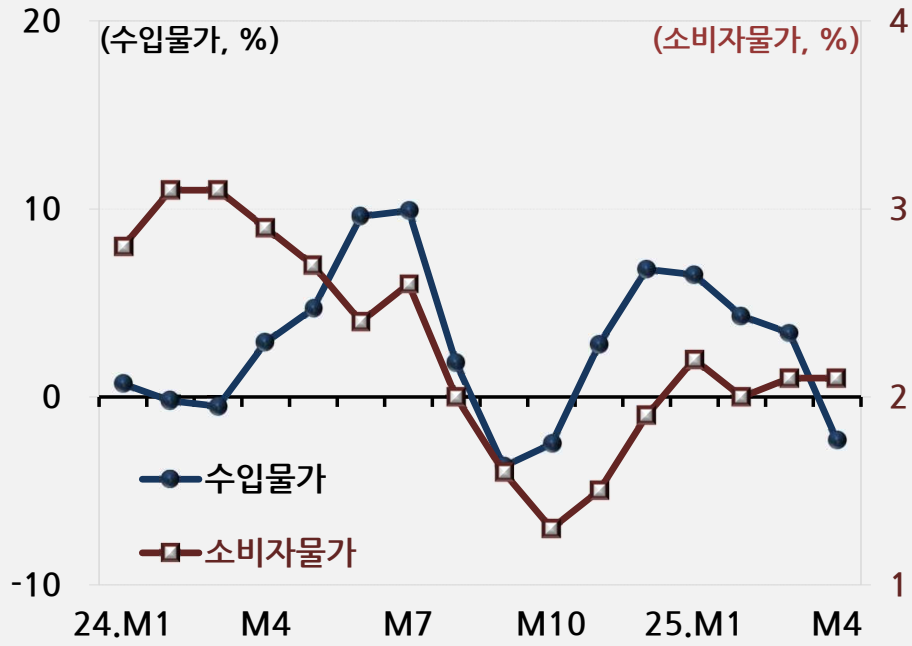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② 부문별 동향 및 전망 - 물가

시장 수요 위축으로 1%대 물가상승률 전망 (HRI 2.3%24 → 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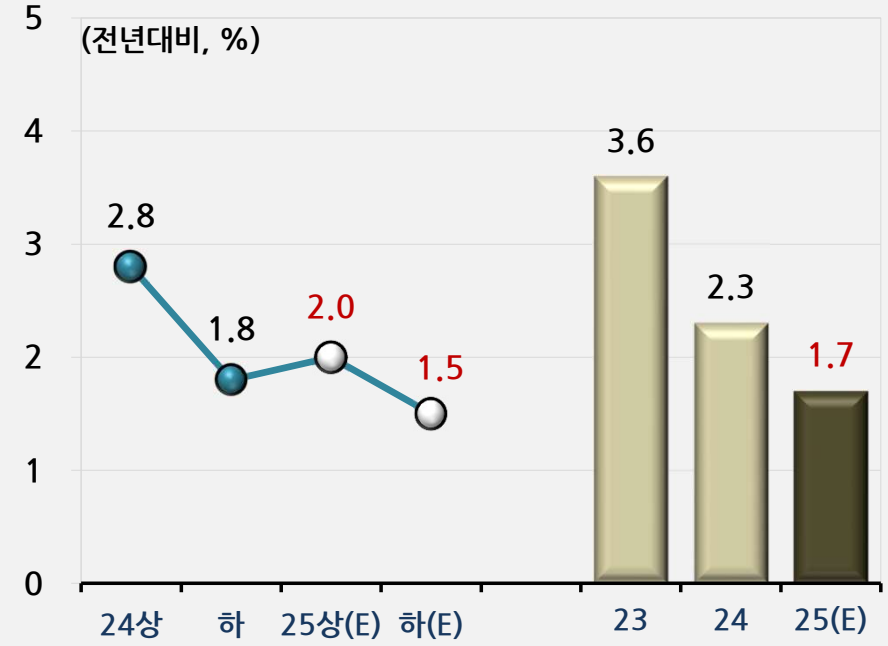
-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 특히 대내외 시장 침체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도 미약
- 특히, 기술적으로 逆기저효과(inverse base effect)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상승률 하락 지속 예상

수입/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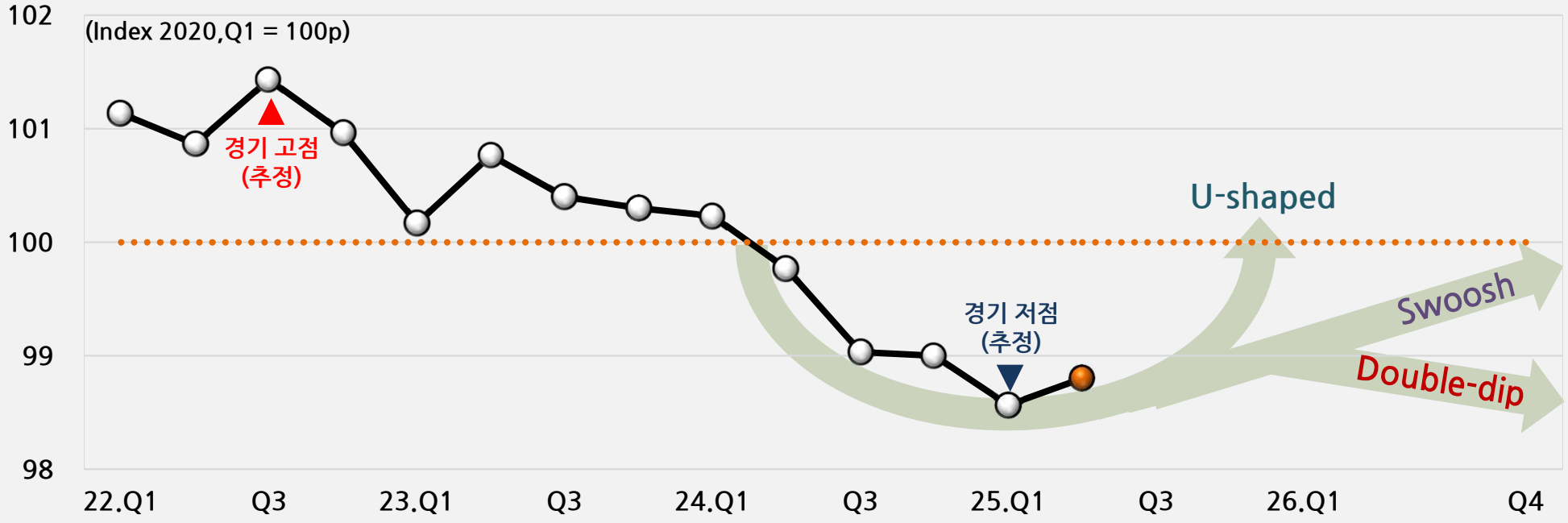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종합〉 경기 방향성 전망

현 여건 상 '스우시(Swoosh)'형 저속 회복 가능성 유력

① U자형(U-shaped) : 완만한(Moderate) 회복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
② 스우시(Swoosh, 나이키형) : 저속(低速) 회복 시나리오(Base Scenario)
③ 더블딥(Double-dip) : 재침체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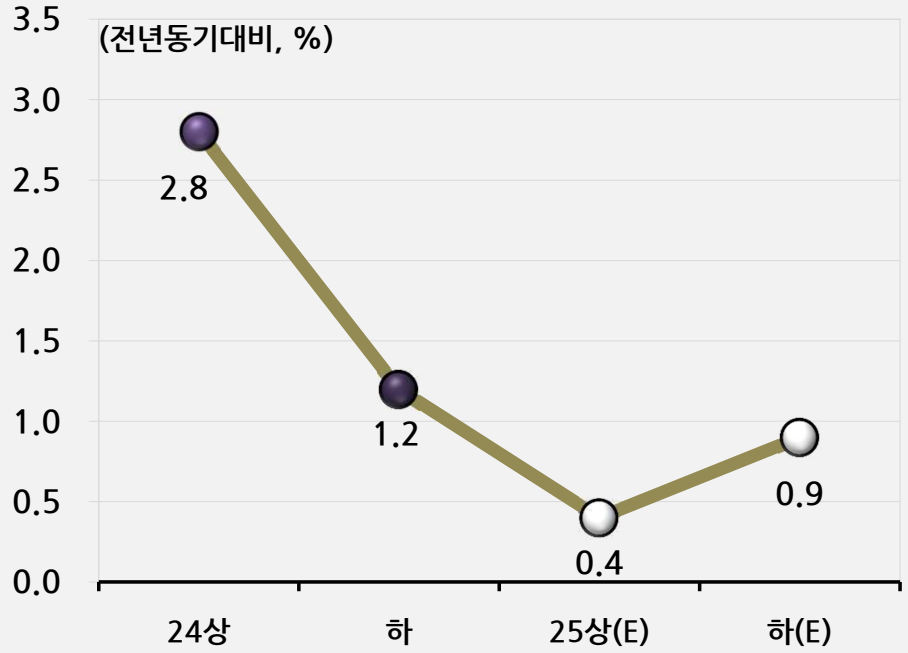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분기 평균 기준

〈종합〉 경기 방향성 전망

초 저성장 국면 진입 (HRI 2.0%24→ 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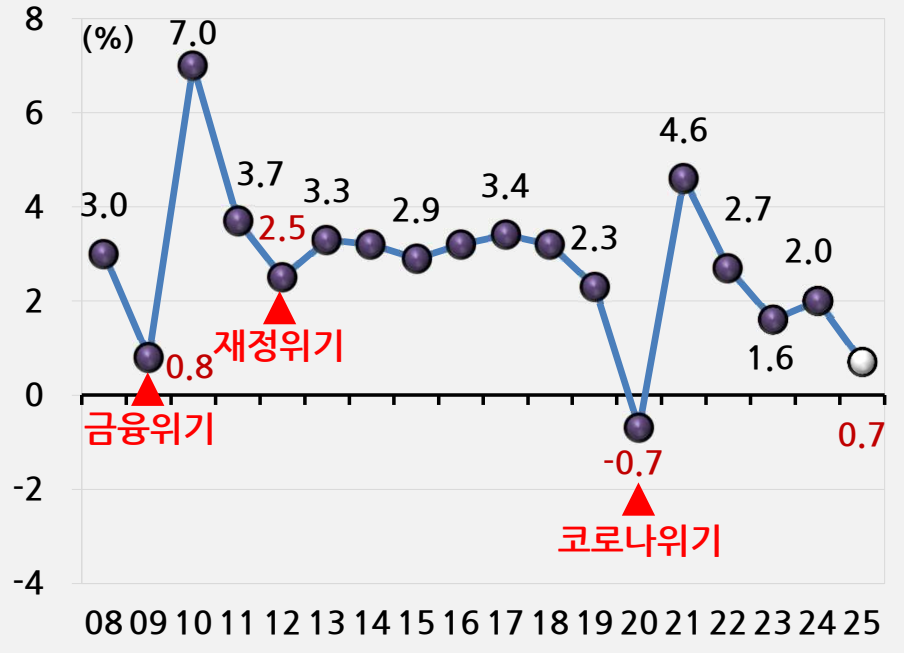
- 2025년의 경제성장률은 1% 미만의 수준 예상
- **(1960년 이후 낮은 순서로 네 번째)** 66년 동안 낮은 순서 경제성장률, '98년(△4.9%), '80년(△1.5%), '20년(△0.7%)에 이어 '25년(연구원 전망치 0.7%)이 네 번 째에 해당

상·하 반기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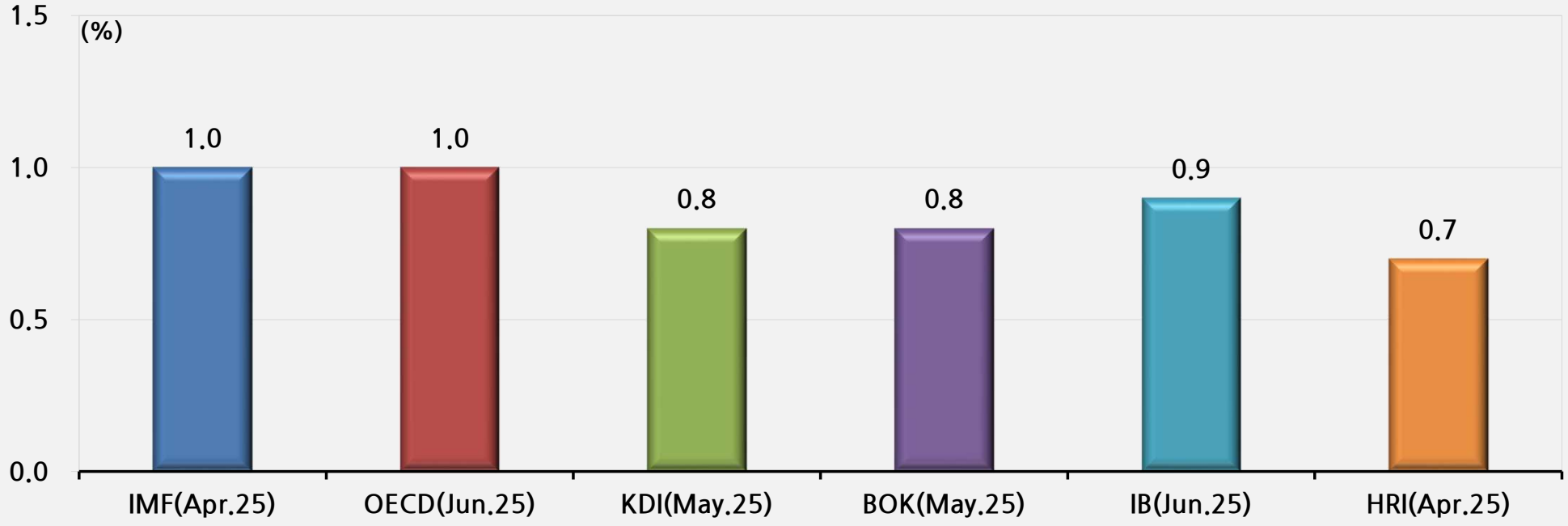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실적), 현대경제연구원(전망)

〈참고〉 주요 기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025년 경제성장률, 0%대 성장 가능성

-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예측하는 2025년 경제성장률은 2024년(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컨센서스 형성
- 향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들을 고려할 때, 1%대 미만 성장 가능성 확대
- IB 전망: JP모건(0.5%), 씨티·무디스(0.6%), S&P(0.9%), 노무라(1.0%),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1.1%)

주요 국내외 경제연구 기관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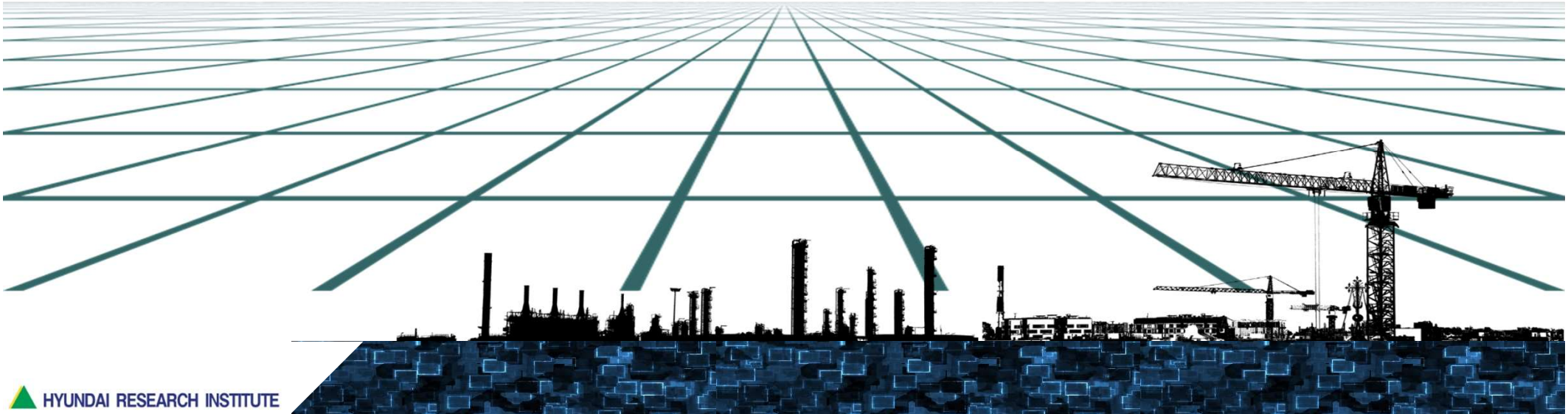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언론 기사

〈참고〉 HRI 한국 경제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2.3%	△0.7%	4.6%	2.7%	1.6%	2.0%	0.7%
	민간소비	2.4%	△4.6%	3.7%	4.2%	2.0%	1.1%	0.9%
	설비투자	△6.3%	4.3%	10.2%	△0.3%	△0.2%	1.7%	1.2%
	건설투자	△1.3%	1.7%	△0.2%	△3.5%	△0.5%	△3.3%	△6.1%
대외거래	경상수지	597억불	759억불	852억불	258억불	355억불	990억불	490억불
	무역수지(통관기준)	389억불	449억불	293억불	△478억불	△103억불	518억불	276억불
	수출(통관기준)	△10.4%	△5.5%	25.7%	6.1%	△7.5%	8.1%	△4.0%
	수입(통관기준)	△6.0%	△7.1%	31.5%	18.9%	△12.1%	△1.7%	△0.5%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	0.4%	0.5%	2.5%	5.1%	3.6%	2.3%	1.7%
고용	실업률	3.8%	4.0%	3.7%	2.9%	2.7%	2.8%	3.3%
	취업자증감	30만명	△22만명	37만명	82만명	33만명	16만명	15만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25년 4월)

4 시사점



대응 방안

첫 째,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 중이고 과거의 경험상 위기는 연이어 오는 사례를 고려하여,
예상치 못한 글로벌 위기(금융위기, 통화위기 등) 가능성을 염두에 둔 Contingency Plan 수립도 필요

둘 째, 「트럼프 노믹스 2.0」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관점이 아닌 미국내 여론과 지지율에 근거 필요,
향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투자·인력·출하 계획의 구축

셋 째, 미·중 관세 전쟁, 중국 정부 경기부양책 강도, 중국 내 공급과잉 등에 따른 중국 시장 방향성 판단 중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물론, 내수 기업도 중국 기업의 국내 시장 수입 침투 가능성 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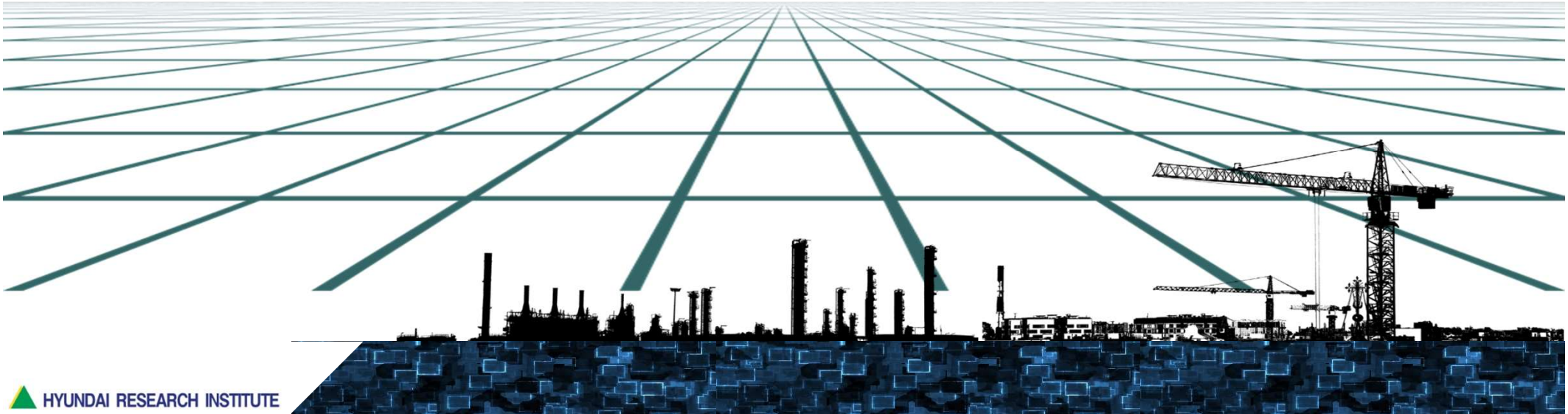
넷 째, 금리 하락 등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완화로 자금 운용 부담이 다소 감소될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미국과 대부분 국가와의 금리 역전 장기화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오히려 심화 우려

대응 방안

다섯째, 현, 불황 국면에 대응한 새정부 경기 부양책의 방향 및 내용의 효과와 부작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 수급 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조직의 단기 시장 전략 방향 재조정 시 이를 반영

여섯째, 새정부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을 파악하고 국가적 재원이 집중되는 섹터에 대한 사업 기회 포착
현 정부의 근본적 성장 기조인「포용 성장」에서 파생되는 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 필요

일곱째, 경제·산업 지형의 급변 과정(3차 산업 혁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에서 나타나는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성장'과 '안정'에 대한 전략적 비중 도출 필요

여덟째, 다만,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SNS의 망국론(亡國論) 저널리즘에 대한 경계가 필요
단기 및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혜안을 통해 조직 내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방지

감사합니다